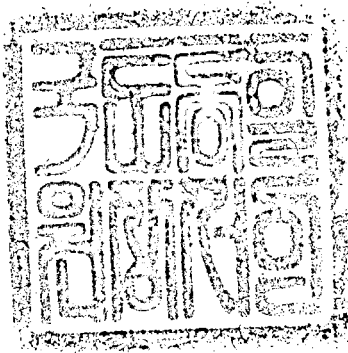


北方政策研究資料 시리즈 Ⅵ

국통조 89-10-75

蘇聯의 對韓國接觸·交流의 現況과 展望



1989. 10

국토통일원

- I. 본 冊子는 國土統一院 事業計劃의 一環으로 外部專門家에 委囑한 特殊分野 研究結果를 收錄한 報告書임.
- II. 이곳에 收錄된 內容은 當院의 見解와 반드시 一致하는 것은 아니며 韓半島周邊情勢 및 北方政策研究關聯 參考資料로 提供하는 것임.

蘇聯의 對韓國 接觸·交流의 現況과 展望

연구책임 김 성 윤
(정치학박사, 단국대학교수)

간행책임 강 석 승
(조사연구실 보좌관)

국 토 통 일 원

〈 目 次 〉

* 要約文	3
I. 序 論	7
II. 蘇聯의 實像	9
1. 蘇聯의 潛在能力	9
2. 改革의 基本方向과 目標	12
III. 新時代 (New Times)와 國際秩序의 再編	15
1. 戰後의 美·蘇	15
2. 냉전구조의 變化	16
3. 新思考의 餘波와 아시아	19
IV. 極東地域開發 背景과 戰略.....	23
1. 開發戰略과 條件	23
2. 極東開發計劃 및 方向	27
V. 蘇聯의 對 韓半島觀과 變化推移	30
1. 韓半島에 대한 관심	30
2. 韓半島에 대한 적극 介入政策	34
3. 韓國의 對蘇政策	35

VI. 韓·蘇間의 새로운 接觸	38
1. 接觸과 단절	38
2. 再接觸	43
VII. 새로운 蘇聯의 極東戰略과 韓國	47
1. 東北亞戰略과 世界	47
2. 東北亞戰略의 具體化	50
3. 極東開發의 파트너로서의 韓國	53
VIII. 將來의 展望	55
1. 韓·蘇의 經濟關係	55
2. 東北亞 情勢와 韓·蘇	57
* 附錄(韓·蘇關係 主要日誌)	62

要 約 文

1. 고르바초프 執權以後 페레스트로이카(改革: Perestroika) 政策을 널리 쓰고 있는 蘇聯은 1986年 7月 28日 「블라디 보스토크」 演說을 통하여 아시아 國家群의 일원임을 闡明함과 동시에 東亞細亞政策에 역점을 두기 시작했다. 이러한 蘇聯의 東亞細亞政策과 韓國의 北方政策이 서로의 필요에 따라 하모니를 이룸으로써 韓·蘇間 民間人간의 往來가 빈번해졌다. 이러한 關係發展은 점차 兩國間的 經濟·文化關係의 增幅과 함께 東亞細亞 地域의 緊張緩和에 寄與하고 있고, 또 寄與하게 될 것이다.
2. 蘇聯은 對外開放 및 시베리아 開發에 韓國을 통한 資本 및 技術을 習得하기 위하여 對韓國 接近을 매우 적극적으로 推進하고 있다. 따라서 蘇聯의 對韓國觀도 예전과는 달리 많이 변모하였다. 즉 蘇聯은 고르바초프 執權 前까지만 해도 韓國을 戰略的인 觀點에서만 考慮하였으나 '88 서울 올림픽 參加 이후로는 두드러지게 經濟的인 實益을 중시하는 쪽으로 선회하고 있음이 뚜렷하다.
3. 蘇聯은 유럽쪽에서는 西獨을 통하여 資本과 技術을 導入하였고, 아시아에서는 주로 日本을 통하여 資本과 技術을 導入했다. 그러나 蘇聯과 日本 사이에는 北方領土 問題라는 커다란 障礙가 있다. 日本은 蘇聯에 대하여 北方 4個

島嶼의 반환을 끊임없이 要求하였고, 蘇聯은 이들 島嶼를 돌려주지 않음으로써 兩國사이의 經濟協力關係는 원만하게 發展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蘇聯은 시베리아 開發을 日本이 아닌 다른 나라로부터 도움을 받아 推進하려고 한다. 여기서 부각된 나라가 바로 新興工業國인 韓國으로서, 蘇聯은 韓國에 대하여 매우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4. 아시아 地域의 활기찬 經濟的 成長과 漸增하는 通商關係 및 先進技術을 導入하여 침체된 蘇聯의 經濟에 活力과 革新을 圖謀하기 위하여 蘇聯은 특히 東北亞에서 非中國系이며 新興工業國인 韓國과의 經濟協力을 갈망하고 있다. 그 具體的인 例가 1988年 「크라스노야르스크」 宣言에서 韓國의 與件 改善에 따라서 韓國과의 經濟協力 可能性이 있다고 밝힌 점으로 미루어 시베리아 地域의 開發에 韓國의 參與를 誘導하고 있다.

5. 蘇聯의 外交路線은 두가지로서, 하나는 帝國主義로부터 第三世界 國家 人民의 解放을 위한 人民革命이고 다른 하나는 現狀維持 指向으로 緩衝地帶를 형성하는 것이 그것이다. 그러나 蘇聯은 고르바초프의 執權以來 심각한 經濟難을 타개하기 위하여 理念보다는 實利를 위해 페레스트로이카의 기치아래 改革과 開放을 적극적으로 推進하고 있다.

6. 蘇聯은 아프가니스탄에서 超強大國으로서의 위신의 추락과 좌절감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國力の 消耗를 초래했다.

따라서 이러한 수렁에 빠진 經濟力을 제 位置에 올려 놓기 위한 方法으로 시베리아 및 極東의 開發에 역점을 두기 시작했다. 蘇聯이 이 地域을 開發하기 위하여서는 科學技術을 包含한 經濟的 能力과 이의 持續的인 推進에 障礙가 되지 않는 國際政治的 安定이 먼저 必要했다. 특히 強大國들의 利害가 교차되는 東北亞에서의 平和的인 環境造成이 必要했다. 이러한 要請에 副應하여 내놓은 것이 1988年10月16日 크라스노야르스크에서 發表된 아시아 太平洋 地域에서의 安保와 平和를 위한 7個項의 새로운 平和案이다.

I . 序 論

古典的인 理論으로 蘇聯의 外交政策을 論할 時 兩 理 論을 中心으로 論하였다. 즉 蘇聯은 革命을 바탕으로 世界支配가 目的인 道進적이며 膨脹主義的 國家라는 側面과 蘇聯 역시 本質的으로는 自國의 利益을 保全하려는 保守的이고 現狀維持 指向的 國家로 보려는 側面이 그것이다. 따라서 前者의 側面에서 보면 蘇聯의 어떤 內容의 政策이나 宣言도 결국은 勢力膨脹에 있으므로 強力한 軍事力으로 그들의 膨脹勢力에 맞서야 된다는 結論的인 面을 함축하고 있다. 그러나 後者에서는 外交的 協商이나 힘의 均衡 (Balance of Power)을 통하여 蘇聯과 和合的 關係를 추구해 나가야 될 것이라는 암시를 주고 있다.

蘇聯에 대한 이러한 固定觀念은 第2次 世界大戰 以後의 外交政策을 다각도로 觀察하여 보면 그들 理論들이 상당히 많은 모순점을 안고 있다는 것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따라서 좀 더 쉽게 蘇聯과의 關係에 있어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의문점과 問題들에 接近하기 위해서는 蘇聯이 처해 있는 國內外的 狀況 등의 背景을 보다 중요하게 認識해야 할 것이다. 이는 問題의 解決을 위해서 狀況을 研究하고 그러한 狀況에 따라 問題解決을 위한 具體的인 方法을 研究하는 것이 더욱 實用的인 것임을 뜻하기 때문이다.

蘇聯과 韓國은 地理的으로 가깝게 인접해 있으나 相互間에 理念과 體制가 다른 國家이다. 蘇聯은 韓半島를 둘러싼 強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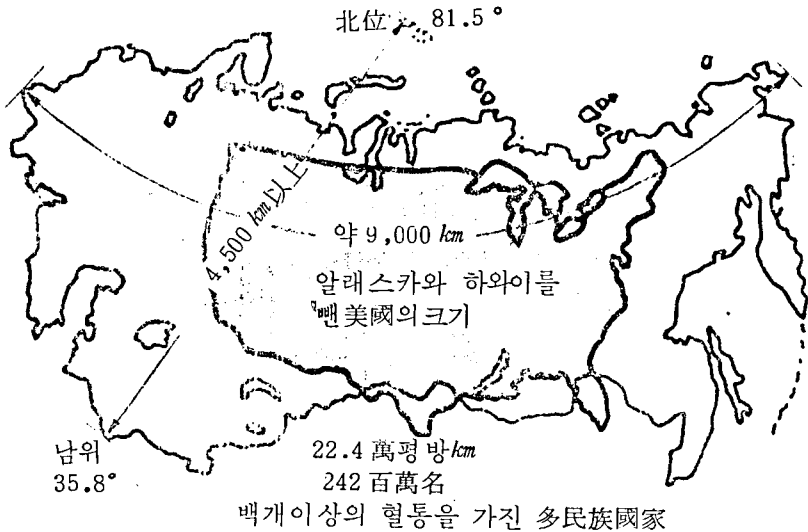
國들의 利害當事國의 一國으로 오랜 期間 동안 北韓만을 한반도의 唯一合法政府로 인정해 왔다. 이로 인하여 韓國과 蘇聯關係는 근 40여년 동안 그 交流가 단절되어 있었다. 그러나 최근 蘇聯 共產黨 書記長 고르바초프는 1986年 7月 28日 블라디보스톡 演說과 1988年 9月 16日의 크라스노야르스크 演說을 통하여 새로운 對아시아 政策을 밝혔다. 蘇聯의 고르바초프는 國內의인 改革 (Perestroika)과 國際의인 開放 (Glasnost)의 기치아래 대결적인 緊張을 緩和시키는 政策을 펴고 있다. 특히 西方側과의 經濟交流를 擴大하고 있으며 1988年 9月 서울올림픽 參加 이후 韓國과의 人的, 物的 交流를 점차 擴大시켜 나아가고 있다. 韓國은 第6共和國의 출범과 동시에 새로운 北方政策으로 理念과 體制의 壁을 무너뜨리며 그동안 단절상태의 蘇聯과의 關係改善을 위하여 努力하고 있다. 따라서 本稿에서는 蘇聯의 새로운 極東政策에 주목하여 앞으로 어떻게 對韓國關係가 展開될 지를 蘇聯의 아시아관의 變化過程과 背景 그리고 역사적 추이등을 통하여 展望해 보고자 한다. 특히 현재의 特定한 狀況과 時期 속에서 蘇聯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떤 方法으로 추구하고 改革하려 하는지, 그들의 改革은 실제로 한반도에 어떤 影響을 미치게 될지, 影響을 미치게 된다면, 어떤 것이며 앞으로의 韓·蘇關係는 어떤 方向으로 發展하게 될 것인지를 蘇聯의 國內政策과 外交政策을 分析하여 豫測해 보고자 한다.

II. 蘇聯의 實像

1. 蘇聯의 潛在能力

蘇聯은 아래 地圖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世界 最大의 면적을 가진 國家이다.

〈그림 1〉 蘇聯과 美國의 크기의 比較 1)



蘇聯의 東西의 길이는 동경 19.5°에서 서경 169.5°에 달하며 國內 비행에만도 약 11 시간이 소요된다. 또 南北은 북위 35°에서 82°까지로 약 4500 km에 달한다. 蘇聯의 總面積은

註 1) Hans-Hermann Hartwich, 「Politik in 20. Jahrhundert」
(Georg Westermann Verlag : BRD, 1977), p. 351.

2,240 km²로 이는 남극대륙을 除外한 全世界 陸地의 1/6 에 해당하고, 美國, 中國, 인도의 3國을 합친 面積보다 넓다. 이러한 거대한 나라 蘇聯은 15個의 地方州를 거느린 共和國으로 構成된 聯邦國家이나 共產化 이후 行政적으로는 中央集權的 統治形態로 유지되어 왔다.²⁾

蘇聯의 人口는 1988年 末을 基準으로 약 2億 8千 4百 5십만명이고 150여종이나 되는 言語가 通用되고 있다. 蘇聯의 대부분의 人口는 第12次 經濟開發 5個年 計劃에 따라 農村地域으로부터 都市地域으로 이동하여 1987年 末 蘇聯의 都市人口는 全人口의 66%에 해당된다. 蘇聯의 勞動者 및 事務職員의 月平均 賃金은 1986年에 168.9 루블에서 1987年에는 202.9 루블로 20% 상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蘇聯 住民들의 一般 消費生活은 歐美 先進國에 비하여 매우 뒤떨어져 있다.

生産量의 總量的 比較에서는 어느 先進國과 다름없이 상당히 높은 水準에 있다. 그러나 消費財部門, 그중에 특히 輕工業의 落後는 蘇聯을 三流國家와 比較케 하고 있다. 즉 實生活의 水準을 가늠케 하는 商品인 승용차, TV, 冷藏庫, 家具 등 耐久消費財가 뒤떨어진 生必需品生産의 일면을 보여주고 있다.³⁾

1985年 3月 蘇聯共產黨 中央委員會 書記長이 된 고르바

註 2) Hans-Hermann Hartwich, 앞의 책, pp.361-376.

3) 安錫教, 「蘇聯經濟現況과 韓·蘇經濟協力關係」, (漢陽大學校 中蘇研究所, 訪蘇歸國報告會, 1989.4.27.)

초프는 이처럼 경직된 蘇聯社會에 活力을 불어넣어야 할 狀況에서 政權을 쥐게 되었다. 그는 黨書記長에 就任하자마자 宗전의 保守的指導者들과는 달리 內部改革의 意思를 분명히 하고 이를 政策代案으로 提示하였다.⁴⁾ 물론 스탈린이 死亡한 後 蘇聯의 黨書記長이 된 후르시초프도 1956년에 開催된 蘇聯 共產黨 第20次 全黨大會에서 스탈린을 格下함과 同時에 社會主義에 이르는 수정주의노선을 提示했었다. 즉 勤勞者의 職業選擇 및 移住의 自由, 集團農場의 活性化 등의 革新的인 政策代案을 提示하였으나 成功을 거두지 못하고 權座에서 물러나고 말았다. 그 후 후르시초프의 후임으로 登場한 브레즈네프는 蘇聯을 다시 保守性格을 띤 스탈린式 경직된 體制로 되돌려놓고 말았다. 결국 브레즈네프는 20年 가까이 執權하면서 蘇聯을 1人 獨裁體制化하였으며 美·蘇間의 冷戰體制를 유지하기 위하여 막대한 豫算을 國防費擴張에 支出하였다. 그 結果 蘇聯은 尖端兵器를 保有한 第3世界로 전략하였으며, 人工衛星을 쏘아 올려도 맵시있는 승용차는 만들지 못하는 三流國家가 되고 말았다. 브레즈네프가 死亡한 後 힘없는 보수노약자들이 3年사이 3名이나 登場하였으나 蘇聯의 경직된 社會를 희생시키기엔 역부족이었다. 이후 革命 3世代라고 불리는 젊은 指導者 고르바초프는 1986年 2월에 開催된 蘇聯 共產黨 第27次 全黨大會에서 새로운 政策을 과감하게 提示하

註 4) Michail Gorbatschow, 「Perestroik」 (Droemer Knaur, München, 1987), pp. 17-67.

였다. 즉 1986년부터 1990년까지 第12次 5個年計劃을 樹立했는데 이 計劃은 2000년까지의 長期社會·經濟發展 計劃의 일환으로 第27次 蘇聯 共產黨 全黨大會에서 최종적으로 採擇되었다.

2. 改革의 基本方向과 目標

社會·經濟改革의 基本指針을 토대로 1987年 1月の 黨中央委員會 全體會議에서는 經濟·社會改造政策의 前提로 政治改革 즉 彈壓이 緩和된 民主化改革을 시작하였다. 1987年 6月에는 黨中央委員會 全體會議에서 經濟改革에 대하여 全般的인 討議를 거쳐 經濟運營의 根本적인 改造를 위한 基本指針이 採擇되었다. 經濟改革은 종래의 中央執權의이고 官僚주의적 方式을 脫皮하여 과감하게 새로운 經濟的 運營方式을 導入하였다. 즉 企業 自主性的 擴大와 經濟管理組職의 整備, 中央管理制度인 中央執權的 方式에서 民主的, 自主的 方式으로 轉換케 하였다. 그밖에도 勞動의 再組織과 價格體制, 財政, 金融制度 및 供給體系 改編등과 科學技術의 促進, 對外協力的 擴大 등을 내세우고 있다.⁵⁾

이처럼 페레스트로이카는 고르바초프에 의하여 구상된 蘇聯 發展의 方向과 目標의 提示이며 蘇聯의 平和的 影響力 增大를 위한 世界戰略이다. 물론 根本적인 改革의 窮極적인 目標

註 5) Boris Meissner, 「Gorbachev's Socio-Political Programme」, Aussenpolitik, Vol. 39, No. 4 (Aussen-Politik IV/88), pp. 376-390.

는 蘇聯 國民들의 生活向上에 있다. 특히 現在의 비대해진 經濟組織의 簡素化 및 產業間 重復組織의 統廢合을 통하여 實質的인 生活의 質的 向上을 위해 經濟構造의 本質的인 變革을 꾀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目標達成을 위하여 고르바초프가 選擇할 수 있는 國內카드는 대략 다음과 같이 要約할 수 있다.⁶⁾

- A. 人事刷新과 勞動規律의 強化
- B. 經濟를 運營하는 組織管理體制의 改善
- C. 下意上達式 意思尊遵에 의한 勞動意慾鼓吹
- D. 科學技術發展의 促進과 應用에 의한 效率的인 經濟構造改革
- E. 投資의 擴大와 機械工業의 優先的 發展
- F. 天然가스, 原子力發展 省에너지의 증시
- G. 곡물증산

한편 이러한 目標達成을 위한 國內카드와 함께 使用할 수 있는 國外카드로는 軍縮에 의한 軍事費支出抑制과⁷⁾ 外國과의 經濟協力增進 등이다. 특히 軍事費 支出抑制을 위한 軍縮이나 外國과의 經濟協력을 통한 資源開發 및 經濟構造의 改革을 위하여 蘇聯은 양손을 들어 世界를 그들의 품안으로 끌어들이려 하고 있다. 즉 오른손으로는 유럽共同體의 일원이라는 주장으로 西유럽을 파고들며, 왼손으로는 太平洋 연안국임을 자부하면서

註 6) Boris Meissner, 앞의 글, p.379.

7) 中央日報, “첫공개된 蘇 국방예산”, 1989.5.31.

극동쪽에 關心을 기울이고 있다.

이처럼 오늘날의 世界에서는 지난날의 가치관이나 사고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새로운 戰略과 현상들이 우리 앞에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더욱 분명한 것은 소련 社會主義의 限界가 보다 분명하게 우리 앞에 나타난 것이고, 소련의 指導者 고르바초프는 굳이 이를 숨기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는 소련 社會主義의 限界를 克服하기 위하여 開放과 改革을 서두르고 있으며, 이러한 그의 도전은 소련을 비롯한 國際政治에 광범위한 전환을 促求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Ⅲ. 新時代 (New Times) 와 國際秩序의 再編

1. 戰後의 美·蘇

세계제 2 차대전 뒤 승전국이 된 美國과 蘇聯은 세계를 東·西 양진영으로 분할하였다. 이후 兩國의 論理는 서로를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극과 극으로써 오늘날까지 平行선을 그어오고 있다. 즉 世界革命을 노리는 공산주의 음모에 대하여 자유수호를 미국측은 주장하고 있다. 반면에 소련은 獨占資本主義의 연장인 新植民主義나 新帝國主義 勢力에 맞선다는 論理로 대항해 왔다. 양국의 이러한 論理는 國際政治에 있어서 이데올로기 樹立과 軍備增強의 競爭을 特徵으로한 冷戰時代로 일관되어왔다. 그러나 兩國은 상대방을 군사적 힘의 우위를 통해 압도하겠다는 意味에서 단행한 과도한 軍事力 擴張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힘의 弱化를 가져오게 되었다. 오늘날 미·소 兩國은 地球를 여덟번이나 破壞할 수 있는 可憐 (terrible) 할 核武器 및 우주무기를 保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엄청난 武器의 保有에도 불구하고 兩國은 스스로의 파멸을 각오하지 않은 한 核武器를 使用할 수 없다는 딜레마에 빠지고 말았다. 최근 들어 미국의 상대적 衰退를 폴 케네디 (Paul Kennedy)가 그의 저서「大國의 興亡」⁸⁾에서 지적했듯이 미국은 상대방을 제압하기 위한 과도한 軍備競爭으로 商

註 8) 폴 케네디 (Paul Kennedy), 「強大國의 興亡」 (李日洙 외 2人 共譯, 서울 : 매일경제신문사, 1989.1), pp.409-509.

品の 競争力を 떨어뜨렸다. 따라서 美國은 他國에 비해 競争力이 弱화된 自國經濟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게 되었다.

1985年 3月 소련의 指導者로 登場한 미하일 고르바초프 역시 國內改革을 하자면 絶對적으로 相互共存과 協力이 必要하다는 것을 認識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고르바초프는 國內的으로는 페레스트로이카 (改革)와 글라스노스트(開放)를 내세웠고, 國外的으로는 「노브예 무이시레이니에」(新思考: New Thinking)를 내걸고 國際關係에 대한 발상(New Ideas)의 대전환을 斷行하였다.⁹⁾

2. 冷戰構造의 變化

제 2차 世界大戰 直後부터 싹뻗던 冷戰을 많은 學者들은 여러 要因에서 찾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까지 거의 有力한 學說은 소련이 알타會談에서 약속한 事項을 지키지 않는 데서 유발되었다는 說이다.¹⁰⁾ 즉 戰後의 世界秩序의 再編을 놓고 알타에서 美·英·蘇 3大巨頭들이 모여 상의한 결과 동구라파 國家들은 自由로운 選舉에 의하여 自國의 選擇權을 갖게 한다는 合意의 導出이 있었다. 그러나 蘇聯은 이러한 約束을 破棄하고 오히려 이 地域 國家들을 蘇聯의 衛星國家화 했으며 그들의 우세한 勢力을 바탕으로 지중해 諸國家들

註 9) 金成允, 「신데탕트 기류하의 한반도」, (서울: 반도출판사, 1989.3), pp.1-9.

10) 金成允, 앞의 책, pp.83-85

에게까지 그들의 勢力을 擴大하려는 데에서 冷戰은 始作되었
다고 한다.

1950年代에는 共產圈을 一次的인 綜合體로 보고 자유진영
對 共產진영 간의 理念的 대결이 分明하였으나 1970年代 後
半期에 절정에 달한 新冷戰은 美, 蘇間에 理念的인 大결의
性格보다는 戰略的이고 힘의 均衡이란 性格이 더욱 重要視되
었다. 따라서 1950年代의 國際政治는 美·蘇間的 兩極化 現象
이 特徵이라면 1970年代의 國際環境은 多極化 양상을 띠었
었다. 그러나 1980年代 後半期서부터 시작된 新데탕트의 기운
은 自國의 實利的 政策과 자국의 國益에 기초한 經濟開發에
최우선을 두고 있다.

그결과 1980年代 中盤以後, 正確하게는 蘇聯의 고르바초프
登場以後 世界強大國들은 전례없이 데탕트를 強調하고 있다.
특히 고르바초프 時代가 開幕된 蘇聯에서는 그의 전임자들에
게서는 느껴보지 못했던 平和攻勢로 세계의 政治氣流를
압도적으로 유도해 나가고 있다. 1989年 초에 大統領에
就任한 美國의 부시도 就任 初期와는 달리 蘇聯에 대하여
보다 積極的으로 도전적 공세를 後退시키고 있다. 이러한 國
際氣流는 지난 30여년동안 반목과 적대감으로 서로를 不信
하던 中·蘇兩國이 그들의 4大懸案¹¹⁾ 問題를 解決하는 前提條

註 11) 中國은 工業·農業·國防 그리고 科學技術을 서기 2000年까지
先進國 水準으로 끌어 올려야 된다는 現實的 과제를 안고
있다.

件下에 中·蘇頂上會談을 開催하였다. 中國은 그들의 四大現代化를 確實히 다져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변이 安定되어야 하고 조용해야 그들 뜻대로 그들의 政策을 追求할 수 있으므로 소련과는 물론 美國, 日本 심지어는 韓國에게도 好意的이다. 中國은 1989年 5月 天安문 民主化 示威事態以後 겉으로는 平溫을 維持하고 있으나 언제 暴發할지 모르는 國內 不安要素로 더없이 外交的 活動空間이 좁혀져 있는 形便이다. 이에 비하여 日本은 戰後 놀라운 經濟發展을 이룩하면서 그들의 經濟的 利益과 既得의 利益을 保護하기 위하여 새로운 市場인 中國과 協力을 增大시켜 왔다. 그러나 1989年 5月 23日에 實施된 參議員選舉에서 여당인 自民黨은 지금까지와는 달리 참패를 하였다. 반면에 만년 야당으로 있던 社會黨이 급부상하게 되었다. 社會黨이 부상하게 된 國際環境의 變化는 최근의 新데탕트 조류로 蘇聯을 現實的인 위협세력으로 간주한 既存의 日本國民들의 安保意識이 變化하고 있는 證據인 것이다. 日本國民들은 日本資本主義의 번영을 自民黨만이 지킬 수 있다는 종래의 생각¹²⁾을 變化시키고 있다는 뜻일 수도 있다.

이처럼 1980年代 中盤以後 世界情勢는 물론 東亞細亞의 政세는 한결같이 和解의 무드로 나아가고 있다. 2次世界大戰以後의 國際的 紛爭의 特徵은 強大國들이 國外로 눈을 돌렸을

註 12) 戰後 日本 自民黨 政府의 外交路線은 美·日 安保條約을 근간으로 하는 美國과의 우호속에서 經濟 優先을 내세운 國益追究였었다.

팬 어김없이 世界가 긴장감에 휩싸이게 되었으며 대부분의 地域紛爭을 直·間接적으로 兩國이 主導하곤 하였다. 그러나 오늘날의 大部分의 強大國 특히 美國과 蘇聯은 그들의 內部問題로 因하여 安定을 바라고 있다는 것은 어찌면 다가오는 21世紀를 새롭게 맞이할 수 있는 한가닥 希望이 될 수도 있다.

3. 新思考의 餘波와 아시아

고르바초프는 1988年 12月 유엔總會의 演說을 통하여 전체 兵力의 10%에 해당하는 50萬名의 軍減縮을 一方的으로 宣言하였다. 그런가하면 1989年 2月4日 約 30여년만에 中國을 公式 訪問한 蘇聯의 外務長官 세바르드나제는 앞으로 2年 동안 蘇聯領 아시아地域에서 東部國境의 20萬名과 南部 國境의 6萬名等 兵力 26萬名을 減縮할 것이며, 몽고에 주둔하고 있는 蘇聯兵力의 4분의 3을 몽고로부터 撤收할 것을 시사하였다. 이러한 一方的인 緊張解消의 철명은 오랫동안 견원지간이었던 中·蘇 두나라 사이도 理念的 굴레를 청산하고 經濟發展에 공동보조를 맞출 것에 合意하고 있다.

중·소관계의 변동을 축으로 하여 아시아 국제환경도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우선은 일·소관계가 세바르드나제 소련의 상의 방일로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으며 중국과 인도의 관계도 간디 수상의 북경방문으로 양국의 숙명적 현안이 되고 있는 國境紛爭을 타결한다는 원칙에 합의하고 있다. 필리핀도

대소관계개선에 積極的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지아 울 하크의 군사통치가 종식된 파키스탄의 부토 新政權도 전통적인 親美政策에서 탈피하여 蘇聯과의 關係改善을 모색하겠다고 선언하고 나섰다. 이처럼 아시아를 비롯한 世界는 蘇聯의 新思考에 의한 외교노선 변경으로 엄청난 變化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같은 기류를 背景으로 國際情勢 전반에 넘쳐흐르고 있는 新데탕트의 물결은 극동의 화약고로 주시되어온 한반도 정세에도 크나큰 變化의 물결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지난 20여년 동안 高度成長을 계속하여 왔던 韓國은 이제 年間 國際收支 黑字만도 약 100 億弗을 넘어서고 있다. 이러한 韓國의 위상은 급변하는 주변정세에도 큰 작용을 하고 있다. 즉 中國은 그들의 實用主義 路線을 표방한 이후 韓國에 대하여 그들의 해안선을 전면 開放하였을 뿐만 아니라 韓國과 中國과의 交易量도 날로 增加하고 있다.¹³⁾ 1987年 20 億弗規模의 貿易去來는 1988年에는 30 億弗 가까이 增加했다. 일년 사이에 거의 50% 이상의 伸張勢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蘇聯은 1986年 7月 고르바초프의 블라디보스토크 선언을 통하여 아시아 國家임을 표방하면서 資源의 寶庫인 시베리아開發에 韓國의 企業들을 參加시키기 위하여 상당한 努力을 해

註 13) 韓國經濟新聞, 「빛장푸는 中共 …… 3大 交易國 可能性」, 1988. 5.10. 과 Su Wenning, 「Die 14 geoffneten Küstenstädte und die Insel Hainan」 (Beijing: China 1987), pp 4-6.

왔다.

1988年 9月 크라스노야르스크 연설을 통해서도 처음으로 韓國을 지칭, 經協擴大 意思를 밝히기도 했다.¹⁴⁾ 이처럼 蘇聯은 自國經濟發展을 위하여 韓國과의 關係改善을 本格化하고 있다. 이와같은 蘇聯의 接近은 지금까지 단절되어 왔던 韓國과 동구라파와의 接近을 加速化시켜, 韓國은 동구라파 國家中 헝가리와 最初로 公式的 外交關係를 樹立했을 뿐만 아니라 유고와 폴란드와도 經濟交流를 加速化시키고 있다.

한반도는 강대국들의 利益이 교차되는 만큼 國際變化에도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음을 이미 지적하였다. 특히 그간 철저한 冷戰狀態를 보여온 主要國家들 사이에 해빙과 화해의 움직임은 韓國의 대북한 政策에도 상당한 變化를 가져오게 했다. 韓國은 7.7선언을 통하여 北韓에 상당한 유화조치를 취했는가 하면, 1988年 10月 18日 유엔 總會에서 6個國 平和會議를 提案하기도 했다. 北韓 역시 그간 中·蘇의 對立과 반목을 利用한 밸런스 外交를 전개해 왔으나 中·蘇의 關係正常化로 北韓의 선택폭도 그만큼 좁아지고 있다.

이제 한반도는 冷戰時代로부터 남겨진 遺産을 청산하기 위하여 새로운 시도를 부단히 하여야될 時點에 온 것이다. 國際情勢의 난기류는 그러한 기류에 맞게끔 발상의 전환을 한반도에도 要求하고 있다. 바꾸어 말하면 固定觀念의 전환을

註 14) Gorbachev Speech in Krasnojarsk, 1988. 9. 16.

통한 새로운 사고는 새로운 價値를 잉태할 수 있다는 時代的 要請을 부단히 受容하지 않으면 안될 狀況으로 아시아는 물론 韓國도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¹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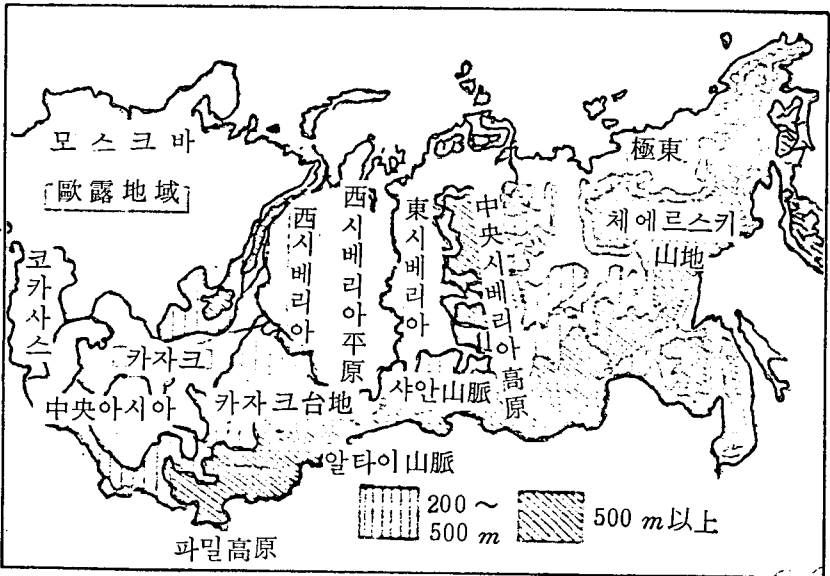
註 15) 金成允, 앞의 책, pp.6-8.

Ⅳ. 極東地域開發 背景과 戰略

1. 開發戰略과 條件

蘇聯은 그들이 아시아의 일원이라고 주장한다.¹⁶⁾ 地圖上으로 볼 때에도 시베리아는 蘇聯의 우랄산맥 동쪽에서 태평양 연안에 이르는 北亞細亞 地域으로 經濟計劃 目的上 西시베리아, 東시베리아, 極東經濟區 등 3個 經濟區로 나누어져 있다.

<그림 2> 시베리아의 範圍



註 16) Gorbachev Speech in Vladivostok, 1986. 7.28.

총체적으로 시베리아는 蘇聯 國土의 約 75%라는 광활한 面積이다. 이는 中國이나 美國보다도 넓은 1,276 만평방 km이다. 그러나 이렇게 넓은 面積에 비하여 人口는 고작 2,600 만명이 살고 있다.





























이처럼 蘇聯은 地理的으로나 歷史的으로 유럽에 속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시아에도 속한 나라인 점을 들어 유럽통합체 쪽에는 유럽國家임을, 아시아 國家群에 대하여서는 아시아 國家임을 주장한다. 그러나 아시아는 지구 표면의 3분의 1을 차지하며 全世界 人口의 절반 以上을 포용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地域은 最近들어 經濟가 高速으로 發展하고 있는 새로운 힘을 잉태하고 있는 地域이기도 하다.¹⁷⁾

또한 蘇聯領인 極東地域은 蘇聯의 地下資源의 4분의 3이 매장되어 있다.

이러한 시베리아의 開發歷史는 길지가 않다. 시베리아 開發史는 帝政러시아 時代로 거슬러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본격적인 開發의 始作은 1960年代에 쉐벤地域에서 石油 및 천연가스가 發見된 以後부터이다. 全體的으로 시베리아에는 蘇聯 木材 生産量의 99%, 石炭 매장량 75%, 石油 및 천연가스 매장량 60%, 可用 水力 發展量의 67%를 차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야쿠트 自治共和國에는 金이, 미르니 地方에는 다이아몬드가, 앙가라 밀림지방에는 철광석이 매우 풍부

註 17) 나카지마 미네오(閔丙天譯), 21세기는 韓國, 日本 대만의 시대, (원음사, 1986. 8.), pp.27-38.

〈그림 3〉 極東西東部 地下資源의 生産量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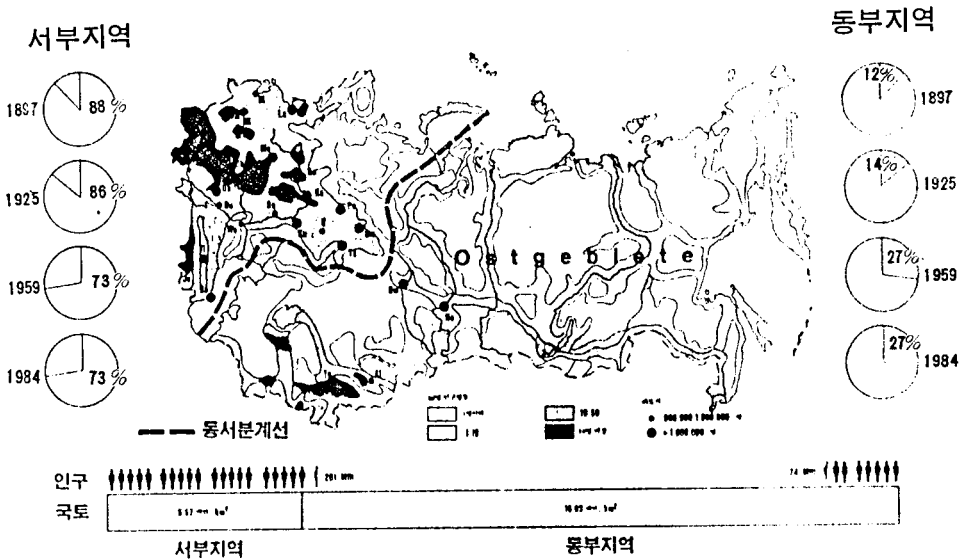
	1950	1960	1970	1983/84
석탄	 27	 28	 32	 35
원유	 1.6	 1.1	 10	 31
가스	 1.5	 0.7	 5	 16
전력	 11	 15	 16	 20
철광석	 13	 8	 8	 15
트랙터	 10	 9	 7	 12
셀룰로이즈(섬유)	 4	 9	 20	 27
인구와 비교	9.0	10.8	10.5	10.5

하게 매장되어 있다. 比較的 西시베리아는 70年代부터 開發에 活氣를 띠고 있는데, 이는 世界的으로 石油, 石炭, 철광석 등 資源의 高갈현상이 심화되면서 이 地域의 開發이 가속화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蘇聯의 開發 中心地도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그러나 極東經濟區는 輸送費와 開發負擔이 워낙 큰 탓으로 1980年代 중반까지 蘇聯經濟의 成長減速要因으로 작용하였다. 이 地域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잠시 언급한 바 있

註 18) 國土統一院, 「韓半島 周邊情勢의 中長期展望」
(國統調 87-11-78), p.170.

<그림 4> 蘇聯의 産業 中心地¹⁹⁾



지만 621만평방km라는 거대한 面積에 비하여 人口는 고작 765만명에 불과하고 그 人口의 大部分이 「블라디보스토크」와 「나훗카」 그리고 「하바로프」등 都市地域에 집중되어 있는 關係로 勞動力이 지극히 부족한 狀態이다. 그러나 東아시아 國家들의 급속한 成長과 함께 世界的 經濟圈이 아시아中心으로 옮겨짐으로써²⁰⁾ 極東地域의 經濟的, 軍事的 重要性이 認識되기 始作함과 동시에 極東의 開發 必要性이 점차 높아져 왔다. 특히 1980年代 중반 이후 蘇聯의 經濟政策은 蘇聯 經濟를 集約化 路線으로 移行시키려고 한다. 이에 따라 시베리

註 19) 國土統一院, 앞의 책, p.177.

20) 나카지마 미네오(関丙天譯), 앞의 책, pp.14 ~ 18.

아 極東地域의 무진장한 天然資源을 보다 大規模로 利用하기 위하여 시베리아 全域의 우선적인 經濟開發政策이 採擇되었다.

2. 極東開發 計劃 및 方向

極東地域의 經濟的 落後는 蘇聯內 原料供給能力의 不足과 겹쳐 줄곧 蘇聯 經濟成長의 減速要因이 되어 왔다. 이같은 상황을 타개하고 韓國, 日本등의 太平洋 經濟圈에 參與하기 위해 소련은 1986年 8月의 고르바초프의 블라디보스토크의 演說에서 提示된 極東 經濟開發計劃에 의거 1987年 7月에 「시베리아」 極東地域 開發計劃을 確定, 시베리아 開發을 本格化하기 시작하였다. 그들의 이 地域에 대한 主要 三大 開發目標는 첫째 서기 2000년까지 極東의 諸社會開發指標을 蘇聯의 他地域 平均値와 비슷하게 하고, 둘째 極東의 經濟構造를 劃期的으로 變化시키며, 셋째 極東經濟를 太平洋의 分業體系에 參與시킨다는 것이다.

다음의 「表-1」에서 보는 바와 같이 蘇聯은 오는 2000년까지 시베리아 開發을 위하여 總 2,300億루블(約 3,300億달러)을 投資할 計劃이며 특히 極東經濟區에 1,980億루블(約 2,800億달러)을 集中 投入할 計劃이다. 이같은 投資를 통해 1987년부터 오는 2000년까지 工業生産額을 2.4~2.5倍, 機械生産은 3.9倍, 漁業生産은 1.3倍, 發電量은 2.6倍로 각각 늘리고, 石油生産量은 800萬t, 天然가스는 150億입방m, 石炭

〈表-1〉 開發計劃圖

計 劃 期 間	1987 ~ 2000 年
開發對象地域	極東經濟區, 부리아트自治共和國, 치타州
投資規模	2,320 億弗
主要部門	計劃目標(基準年度: 1985 年)
工業總生產高	2.4 ~ 2.5 倍
發電量	1,000 億Kwh
石油	700 萬 ~ 800 萬 t
天然가스	130 億 ~ 150 億 m ³
石炭	8,200 萬 ~ 8,500 萬 t
農業의 自給率提高	감자, 야채, 우유, 계란, 돼지고기, 쇠고기, 새고기증산
셀룰로즈	2.1 배
후지	3.2 배
베니어板	6 배
木材搬出量	11 % 增加
漁獲總生產高	1.3 배
社會間接部門擴充	住宅, 學校, 病院, 休憩施設, 體育施設
輸 出	3 배

은 8,500 萬 t 까지 增産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에너지 部門에서는 사할린과 야쿠츠크 자치共和國에 두개의 火力發電所와 極東南部に 두개의 原子力 發電所를 建

設할 豫定이다. 시베리아에는 江과 山이 많은 外形條件 때문에 主要 水力發電所가 있다. 極東開發計劃에 나타난 2000년까지의 發電容量은 1985年 水準의 2.6 倍인 1,000 億Kwh 로 되어 있고, 그중 約 37%를 水力發電으로 充當하고 나머지는 火力發電과 原子力發電으로 充當할 豫定이다. 그러나 시베리아의 外形的 條件 때문에 開發만 한다면 水力發電의 潛在力은 開發 豫定值 보다도 훨씬 많이 높일 수 있다. 또 石油, 가스는 사할린 大陸棚에서만 2000 년까지 4 百萬t 의 石油과 1 百億입방m의 天然가스를 生産한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鐵鋼 部門에서는 生産能力 3 百萬t 의 야금콤비나트를 建設할 豫定이며, 鑛石의 化學야금 處理를 위해 하바로프스크와 沿海州에 4개의 企業을 新設할 計劃이다.

V. 蘇聯의 對韓半島觀과 變化推移

1. 韓半島에 대한 關心

第2次世界大戰이 시작되기 오래전부터 韓半島는 地政學的 要因때문에 強大國들의 利害關係의 各축장이 되곤 하였었다.²¹⁾ 이점은 19世紀末 東亞細亞 政勢만을 考察하여 보아도 너무나 뚜렷하다. 1894年부터 시작된 淸日戰爭은 淸나라가 敗함으로써 1895年 4월에 淸·日間에는 下關係約을 締結하게 되었다. 同條約은 日本이 台灣과 遼東半島의 할양을 淸國으로부터 約束 받은 지독히 가혹한 條約이었다.

한편 러시아는 國境을 만주에 접하고 南下의 機會를 노리던 중 下關係約이 締結되자 獨逸, 프랑스와 더불어 일본의 요동반도 영유에 대한 嚴重한 항의와 함께, 이를 淸國에 돌려줄 것을 권하였다. 그 理由는 日本이 同地域을 領有하게 된다면 항시 淸國의 수도를 危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朝鮮의 獨立은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되어, 結果적으로 이 地域에서 不安이 加重되어 平和를 危脅한다는 것이었다. 프랑스는 傳統的인 러시아와의 유대관계로 日本의 요동반도의 領有를 반대했고, 獨逸은 이 地域에 進出하기 위한 발판으로 삼는 契機를 마련하기 위하여 日本에 항의하는데 연합하게 되었다. 이것이 소위 우리가 歷史的 事件으로만 말하고 있는 三國干

註 21) 韓國政治外交史學會報(第19號), 1989.7.25.

渉인 것이다. 이때 日本은 열강들 사이에 고립되어 끝까지 遼東半島의 領有權을 主張하지 못하고 三國의 要求를 받아들이고 만다. 이를 계기로 열강들의 관심은 막대한 잇권을 놓고 中國에 集中하게 된다. 그러나 러시아는 遼東半島의 南端에 전초기지를 確保하는 한편 朝鮮을 사이에 두고 日本과의 날카로운 대립형세를 취하게 된다. 특히 이즈음 러시아는 極東에 그들의 勢力을 현저하게 增加시키고 있었다. 특히 프랑스, 獨逸과 聯合하여 日本에 影響力을 행사한 代價로 淸國으로부터 시베리아 鐵道가 만주를 通過하는 權利를 獲得하였다. 이어 旅順과 大連을 25年間 租借하고 이곳과 연결시킬 수 있는 鐵道를 만주에 부설할 權利도 함께 얻었다. 이렇게 만주에 支配力을 強化하게 된 러시아는 朝鮮에 대하여도 점차 그 勢力을 擴大해 오고 있었다. 이에 대하여 不安을 느낀 것은 새로운 新興工業國인 日本이었다. 그러나 아직 日本은 러시아에 대항할만한 軍事的으로나 國際政治的인 힘이 蓄積되어 있지 못했다. 러시아 역시 이미 確保된 만주의 잇권을 保護하기에 급급한 나머지 日本과의 잠정적인 타협을 원했다. 이 結果 兩國은 모두 朝鮮의 內政에 干涉하지 않으며, 鍊兵教官과 財務顧問의 派遣은 서로 事前에 協議하며, 러시아는 日本이 朝鮮에 商業 및 工業上의 進出에 대하여 妨害하지 않는다는 것을 약속하였다. 물론 러·日間의 合意는 어디까지나 잠정적이었을 뿐이다. 그러나 이러한 合意는 日本에게 있어서 러시아는 새로운 위협이었고, 그들의 大陸進出에 妨害가 되는

存在였다.

淸·日戰爭의 代價로 淸國의 勢力을 朝鮮에서 몰아내는데 成功한 日本은 그들의 勢力을 계속 擴大해 나아가기 위하여서는 러시아 勢力의 除去가 급선무였다. 이처럼 朝鮮과 만주를 사이에 두고 日本과 러시아는 한치의 양보도 없이 대립으로 치달았다. 이제 어느 한쪽이 양보하지 않는한 戰爭이 일어나리라는 것은 기정의 사실이었다. 그러나 兩國은 어느쪽에서도 양보하지 않았다.

이즈음 淸國에서는 義和團이라는 亂이 일어났다. 이 亂은 中國의 利權에 개입하고 있는 外國勢力에 대한 民族的인 反抗 運動이었다. 이 亂을 鎮壓하기 위해, 中國에 進出했던 列強들은 그들의 利益을 보전하기 위하여 共同으로 出兵하여 반란을 鎮壓하였다. 그러나 러시아는 이 亂의 鎮壓을 구실삼아 만주에 大規模의 軍團을 派遣하였고 亂이 鎮壓된 뒤에도 軍隊를 철수하지 않고 만주에 주둔시켰다. 이것은 一次的으로는 日本에 대한 危脅이었고, 世界 各地에서 러시아와 對立하고 있는 英國에 대한 危脅이기도 했다. 이에 英·日 兩國은 러시아를 가상적으로 1902年 1月 同盟을 締結하였다. 이 同盟을 契機로 英國은 朝鮮에 대하여 日本의 特殊利益을 承認하는 대신 淸國에서의 英國의 利益을 日本으로부터 認定 받았다. 그 외에 兩國은 어느 一國이 제삼국과 交戰하는 경우에 이를 서로 援조할 것도 約束하였다. 이러한 國際情勢를 利用하여 日本은 英·美와 함께 러시아軍이 만주로부터 철군할 것을 要

求하였다. 러시아는 이러한 國際政勢를 勘案하여 1902年 4月 세차례에 걸쳐 러시아군의 철수를 약속하였다. 그러나 1차에 걸친 形式的인 철군을 하였을 뿐 러시아軍은 여전히 만주를 점령하고 있었다. 日本은 러시아가 만주로부터 철군을 하지 않자 러시아에 대하여 약속의 履行을 促求하는 한편 새로운 協商을 제기하였다. 즉 日本이 朝鮮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權利에 개입하는 것을 러시아가 承認할 것과 만주에 日本의 商業上의 進出을 許容하라는 것이었다. 이에 대하여 러시아는 日本이 朝鮮에 대하여 政治·經濟的 優先權이 있음은 認定하나 軍事, 戰略上으로 利用하는 것에 대하여는 반대하는 한편, 만주는 전혀 日本의 利益範圍 밖에 있음을 主張하였다. 또한 北緯 39度線을 中心으로 이북의 朝鮮 領土를 中立地帶로 정하여 兩國의 軍隊介入을 배제할 것도 提議하였다. 수차례 걸쳐 進行된 이러한 협상은 결국 決裂되었고, 日本은 武力으로 問題를 解決할 것을 결심하게 되었다. 이 結果 1904年 2月 旅順에 대하여 日本의 기습공격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하여 시작된 러·日戰爭은 세계 여러나라의 豫想을 뒤엎고 日本의 勝利로 끝나게 된다. 이와같은 상황을 綜合해 볼 때 러시아는 朝鮮을 오늘날의 스웨덴처럼 中立地帶로 두는 同時에 滿洲에서 러시아의 利權을 保護하는 완충지대로 생각했던 것이 당시 러시아의 對韓半島政策이었음을 알 수 있다.²²⁾ 그러나 러시아

註 22) 앞의 회보, p.6.

의 敗北로 러·日間에는 韓半島를 사이에 놓고 한동안 러시아 勢力의 남하가 中斷되었다.

2. 韓半島에 대한 積極 介入政策

러·日戰爭의 패배로 韓半島에 대한 影響力 行使에 중지부를 찍었던 蘇聯은 1945年 8月 8日 日本에 대해 선전포고를 함으로써 다시금 韓半島로 그들의 勢力을 南下할 수 있는 기회를 맞게 되었다. 蘇聯은 8月 8日 對日 선전포고와 함께 만주를 거쳐 韓·蘇國境을 넘어 北韓쪽으로 진주해 들어왔다. 당시 第2次世界大戰은 1943年 6月 이탈리아가 聯合國側에 항복했으며, 1945年 5月에는 獨逸이 항복하고, 8月 15日에는 日本이 聯合國側에 무조건 항복하게 되었다. 이틈을 타 한국북단에 진주해 있던 蘇聯軍은 1948年 8月 22日에는 平壤에 들어왔으며 繼續하여 開城에까지 남하하였다. 그리하여 38도線을 中心으로 北쪽에는 蘇聯軍이, 南쪽에는 美軍이 占領한 狀態에서 國土는 分斷되고 韓國과 蘇聯關係는 다시 38線을 사이로 斷絶되기에 이르렀다. 特히 美國과 蘇聯은 서로 相峙하는 世界觀때문에 韓半島의 分斷을 더욱 固着化시켰다. 두 強大國의 냉전이데올로기는 1948年과 1949年 유럽에서 베를린의 封鎖를 계기로 世界를 分斷한채 힘겨루기 競爭이 가속되기 始作하였다.²³⁾ 이러한 世界情勢속에서 東洋에서

註 23) 姜聲鶴, 「1990年代 蘇聯의 동아시아 政策」(亞細亞研究, 第 XXXII 卷 第 1 號, 1989.1.), p.10.

는 1949年 毛澤東이 勝利하여 中國大陸을 支配하게 되었고, 國民黨을 거느린 蔣介石이 臺灣으로 敗走함으로써 美·蘇 兩國은 더욱 對立하게 되었다. 이러한 對立이 극에 달하게 된 것은 1950年 6月 25日 蘇聯의 後援으로 武裝하게 된 北韓이 韓國을 侵攻함으로써 더욱 뚜렷해진다.²⁴⁾ 以後 韓國은 美國을 中心으로 한 民主진영으로서, 蘇聯과 中國의 支援下에 있는 北韓은 共產陣營으로서 각기 相異한 이데올로기의 路線과 強大國들의 勢力膨脹 사이에서 南北韓 共히 한쪽의 勢力圈에 편승되어 韓國은 蘇聯과 中國, 北韓은 美國과 日本間에 國交의 斷絶을 持續하게 된다.

3. 韓國의 對蘇政策

第2次世界大戰이 채 끝나기도 전에 始作된 美·蘇의 對立은 韓國으로 하여금 蘇聯에 대하여 적대적인 立場을 취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主된 理由는 第1共和國이 樹立되어 安定을 이루기도 전에 蘇聯의 後援을 바탕으로 武裝한 北韓의 南侵은 東西의 冷戰論理를 極에 達하게 했는가 하면²⁵⁾ 韓國으로 하여금 더욱 蘇聯에 대해 적대감을 갖게 하였다. 休戰이

註 24) Werner Link, 「Der Ost-Westkonflikt」, (West-Kohlha-mmmer Verlag, Berlin, 1980), p.157.

25) Werner Link, 앞의 책, pp. 154 ~ 178.

成立되어 70年代 중반이 지나갈 때까지 韓國의 反蘇政策이
 나 蘇聯의 對韓關係는 아무런 變化의 조짐을 보이지 못한채
 적대감으로 일관되어 왔었다. 이는 世界를 東·西 양진영으로
 분할하여 아시아에서는 日本의 北方5도를 中心으로 韓國의
 休戰線을 貫통하여 臺灣과 아프가니스탄의 國境을 따라
 分단의 障壁을 設置했고, 유럽에서는 東·西獨을 양분하
 여 놓았다. 따라서 이러한 兩勢力圈을 형성한 冷戰體制
 의 境계선상에 있는 나라들은 美國이나 蘇聯 어느 한
 쪽에 편승하여 親美·反蘇 혹은 反美·親蘇의 路線을 維持
 하여야만 그들 自身의 體制를 維持할 수 있었다. 이러한 冷
 戰論理는 전후 유럽에서는 아데나위 政府時 西獨의 할슈타인
 原則(Hallstein Doktrin)이 代表的이다. 즉 西獨은 東獨을
 承認하는 나라와는 外交關係를 樹立하지 않겠다는 原則이 그
 것이다. 韓國도 이승만 政權下에서는 西獨의 할슈타인 原則과
 걸맞는 外交路線을 維持하였다. 이러한 原則에 대하여 주목해
 야 할 점은 韓國이 蘇聯에 대하여 적대시하고, 美國과의 同
 盟關係가 깊으면 깊을수록 蘇聯과의 關係는 적대적 性格이
 더욱 강렬해졌다는 점이다. 실제로 第2次世界大戰 전까지만
 해도 韓國은 比較的 蘇聯과의 善隣關係를 維持해 왔다.²⁶⁾ 특
 히 韓國이 日本에 합병됨으로써 만주를 中心으로한 항일전의
 展開는 蘇聯이나 中國에 대하여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友好

註 26) 韓右勳, 「韓國史」(乙酉文化社, 1988), p.474.

的 關係에 있었다. 그러나 世界第2次大戰이 종식됨으로써 日本軍의 武裝解除를 위하여 우리의 意思와는 關係없이 北쪽은 蘇聯軍이 南쪽은 美軍이 占有함으로써 韓國은 隣接國들 중 한쪽을 敵國으로 간주하는 政策을 展開해야만 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낫설기만 했던 이데올로기 論爭으로 南北韓은 서로 相反되는 路線을 追求하는 어느 한쪽에 편승하게 되었다. 특히 蘇聯과 美國의 갈등은 韓半島를 前面에 내세워 中國과 蘇聯의 南進을 저지하고 日本의 安保를 지켜주겠다는 美國의 南北韓 政策으로 韓國의 對北方關係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고정되어 버렸다.²⁷⁾ 韓國의 이승만은 이러한 美國의 世界戰略에 편승하여 美國의 힘을 利用해서 統一을 하려는 外交政策을 展開하였다. 이 結果 對美 일변도의 外交路線은 蘇聯과의 關係를 오랫동안 斷絶시키는 상당한 要因으로 作用하였다.

註 27) Werner Link, 앞의 책, pp. 168 ~ 172

Ⅵ. 韓·蘇間의 새로운接觸

1. 接觸과 斷絶

忠正公 閔泳煥이 1885年 러시아의 황제 「니콜라이」二世의 대관식에 參席하기 위하여 蘇聯땅을 밟은 이래 근 70여년 동안 韓·蘇間의 往來는 斷絶되어왔다. 이러한 斷絶을 들고 蘇聯에 대한 關心과 기대를 가진 계기는 60年代 중반부터 始作되어 1970年代初에 定着하기 始作한 美·蘇의 和解政策에서 그 계기가 마련되었다. 당시의 世界的인 緊張緩和趨勢는 時期와 地域에 따라 다소의 變調는 있었으나 韓半島의 周邊情勢에도 많은 影響을 미쳤던게 事實이다. 이미 1972年 上海에서 있었던 美·中間의 커뮤니케를 起點으로 하여 美·中과 日·中이 和解를 摸索한 結果 日·中平和友好條約이 締結되었고, 1978年 1月1日을 기해서는 美·中間 國交正常化가 이룩되었다. 이처럼 國際秩序가 새롭게 改編되어 가는데도 불구하고 韓半島에서의 狀況은 強大國들의 利害關係에 얽혀 여전히 고정된 狀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그중에서도 中·蘇兩國은 서로 理念을 같이하는 共產國家이면서도 不明確한 隣國境선을 맞대고 있으므로 인하여 60年代 以後 韓半島의 變化에 가장 민감하게 反應하는 것도 無變化의 큰 要因이었다.²⁸⁾ 1970年代 以後 韓半島에서 또다른 變數는 越南

註 28) Donald S. Zagoria, 「Der chinesisch-sowjetische Konflikt 1956 ~ 1961」, (München, 1964), pp.13 ~ 18.

의 敗亡과 함께 美國의 太平洋政策의 變化를 들 수 있다. 越南 敗亡後 美國은 從前의 直接 介入方式을 放棄하고 보다 더 社會問題에 關心을 두고 安保問題와 均衡을 꾀하기 위하여 軍事介入의 縮小를 外交基調에 反映하였다. 이는 지금까지의 國際社會가 이데올로기적 冷戰關係에서 民族主義的이고 軍備強化 보다는 經濟發展에 重視하는 쪽으로 進退하였다. 이러한 國際情勢의 變化는 韓·蘇關係에도 直·間接的인 影響을 미치게 되었고, 그 影響은 韓·蘇間의 오랜 斷絶을 克服하는 실오라기 같은 契機가 되었다. 特히 1973年 8月 15日부터 8月 25日까지 蘇聯의 首都 모스크바에서 열린 大學生들의 스포츠祭典인 「유니버시아드」 夏季大會에 韓國選手團 38名이 史上 最初로 公式的인 蘇聯入國이 許可되었다.²⁹⁾ 평평外交로 불리는 美·中關係改善도 그러했지만 모스크바 유니버시아드大會 參加의 경우도 스포츠는 政治를 앞질러 國境을 넘나드는, 말하자면 촉매작용을 十二分 發揮한 셈이다. 勿論 韓·蘇間에는 유니버시아드大會가 開催되기 두달전 韓國의 全經聯會長 金容完씨와 天友社社長 金澤珪씨가 民間人으로서 처음으로 비자를 發給받아(1973.6.15) 蘇聯에 入國한 일이 있었다. 韓國은 1966年度에 이미 共產國에서 열리는 各種國際機構主催 國際會議에 政府 및 民間代表를 派遣하기로 하고 門戶를 開放해 놓은바 있었으나 그동안 蘇聯에서 開催되는 會議에는 蘇聯이

註 29) 東亞日報, 1973. 8.16.

비자를 發給하지 않아 入國이 不可能한 狀態에 있었다. 그러나, 1973年들어 韓國의 民間人과 스포츠 選手團을 入國시키게된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는 분명치 않지만 中國이 美日과 함께 三角安保體制를 構築한 以上 蘇聯은 獨自的인 韓半島 政策을 세울 必要가 생겼던 것에서 기인된 듯하다. 그 根據는 다음과 같다.

첫째 美·日 兩國 공히 中國을 對蘇戰略카드로 使用하고 있고

둘째 北韓의 親中國政策, 인도차이나 國家들간의 紛爭

세째 中國의 積極的 對아세안 外交

네째 中國이 루마니아와 유고등 東歐 國家를 包含한 유럽 全體에 파고드는등 一連의 綜合的인 氣流로 볼 때 蘇聯의 對外政策이 萎縮되면서 이의 脫出口로 韓國쪽에 시선을 모으고 있으므로 나타나는 自然스런 現象으로 볼 수 있겠다.

특히 이들 變化를 中心으로 前後 事情을 綜合的으로 分析하여 보면 두가지 假定을 해낼 수 있다. 그 하나가 蘇聯의 對韓政策의 變化를 示唆하는 徵兆이고, 다른 하나는 1980年 모스크바에서 開催되는 夏季올림픽에 韓國을 參與시키기 위한 事前 선심공작으로 要約해 낼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優先 蘇聯의 意圖가 어디에 있었느냐를 단편적으로 보기 보다는 그들의 全體的인 對韓半島 政策을 綜合的으로 살펴 보면서 그들의 韓半島 外交政策을 推論해 내고자 한다. 우선 앞서서도 言及했지만 周邊情勢의 變化를 들 수 있다.

具體的으로 美·中國關係正常化로 中蘇對立關係가 70年代以後 더욱 複雜性을 띠게 되었다는 점이다. 兩國은 國境線의 길이 가 7,500 km에 달하여 明確하지 않은 國境線을 따라 紛爭의 素地를 안고 있다. 이러한 兩國사이에 지금까지에는 第三者的 位置에 있던 美國과 日本이 中國과 가까와짐으로써 蘇聯은 不安을 느끼게 됐을 것이고, 이러한 時期에 韓半島에 武力紛爭이 생기게 된다면 蘇聯은 이미 越南戰에서 經驗했던 것처럼 北韓에 대한 蘇聯의 行動半徑이 縮小될 뿐이다. 따라서 蘇聯은 韓半島의 安定을 絕對的으로 바라고 있을 것이고, 또한 蘇聯은 美國이나 日本 또는 그 雙方이 中國과 結탁하게 되는 것을 몹시 警戒를 하여야만 되었다. 그 理由는 歷史가 證明하듯이 러·日戰爭에서 英國과 美國, 日本의 結託으로 蘇聯이 敗한 經驗을 안고 있다. 그러므로 蘇聯에 대하여 매우 不利한 國際與件속에서 韓半島의 紛爭이 發生한다면 蘇聯에 대하여 결코 이로운것이 없다는 認識下에 韓半島에서의 武力統一 또는 이 地域에서의 緊張을 되도록이면 피하려 했던 것이다. 이 때문에 蘇聯은 北韓과의 緊密한 關係를 維持하는 한편 비록 초보적이고 非政治的이긴 하나 韓國과도 어떤 關係改善의 길을 摸索하여 韓半島의 現狀維持를 定着시키는 方向으로 나아가는 政策의 必要性을 認識했을 것이다.

또한 蘇聯은 비록 漸進的이긴 하나 韓國과의 關係改善을 통하여 北韓과 中國間의 거리를 넓히는데 目的을 둔 政策을 可視化하기 始作하였다. 이러한 複合的인 周邊要因으로 인하여 가

장 초보적이라 할 수 있는 스포츠와 文化등을 시발로 韓·蘇의 交流가 점차 넓혀져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注目을 끄는 중요한 變化를 綜合해 보면

첫째, 蘇聯은 1971年부터 北韓의 金日成을 韓半島의 單獨 代辦人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은 點.

둘째, 1972年 7月 4日 南北共同聲明에 基礎한 南北對話를 크게 歡迎한 點.

셋째, 1973年 6月 15日 韓國의 全經聯會長과 民間 企業人을 蘇聯에 入國시킨 事實.

넷째, 1973年 5月 20日 모스크바에서 開催된 유니버시아드大會에 北韓의 反對에도 不拘하고 韓國選手團에게 招請狀을 發送한 事實.

다섯째, 1975年부터 韓國과 蘇聯이 第三國을 통한 貿易協商을 開始하였다는 點.

여섯째, 1976年 8月 板門店에서 일어난 도끼만행 事件을 비롯 一週일이 지나기는 하였지만 客觀的으로 事實的 報道를 한 點.

일곱째, 1977年 감차카 水域에서 잡은 명태를 日本을 통하여 韓國側이 購買하도록 提議해 온 事實.

여덟째, 1977年 蘇聯의 그루지아共和國 트빌리시에서 열린 유네스코會議에 駐 프랑스大使外 6名에게 비자를 發給한 點.

아홉째, 1978年 4月 21日 大韓航空 보잉 707 旅客機를 蘇聯

領空 侵犯嫌疑로 蘇聯 西北部 무르만스크에서 南쪽으로 450 km 떨어진 湖水에 強制 着陸시킨 후 이틀만에 機長과 航法士等 2名을 除外한 全 乘客과 乘務員을 早速히 送還한 點.

열번째, 1979年 5月 25日 蘇聯에서 열린 第43次 國際體育記者聯盟(AIPS)總會에 朝鮮日報 金玼熙記者와 中央日報 盧鎮浩記者에게 入國查證을 發給한 點이다.

이처럼 蘇聯은 韓國에 대하여 1971年을 槓점으로하여 극히 初步的이고 非政治的인 分野에 限하여 그들의 門戶를 서서히 開放하기 始作하였다. 그후 1977年부터는 비록 間接的이긴 하나 民間人들을 통하여 交易이 이루어짐은 물론 兩國國民들간의 相互理解增進을 위하여 記者나 民間人들에게 비자를 發給해 줌으로써 相互的 實利關係를 맺어 나오고 있었다. 그러나 뜻하지 않게도 1983年 9月 1日 大韓航空 007便 747정보 旅客機를 蘇聯領 사할린 부근에서 蘇聯의 戰鬥機가 미사일로 攻擊하여 乘客과 乘務員 2百 69名 全員을 死亡케 함으로써 兩國의 關係는 急速하게 冷却되었다.

2. 再接觸

韓國과 蘇聯의 再接觸이 活氣를 띠게 된 것은 蘇聯의 새로운 指導者 고르바초프가 執權하면서 부터였다. 그는 執權하자마자 脫理念的 實用主義의 路線을 強化하면서 그들의

門戶를 開放하였다. 특히 韓·蘇關係는 1986年 7月 28日 고르바초프가 블라디보스톡의 演說을 통하여 太平洋 國家의 宣言과 1988年 9月 16日 크라스노야르스크 演說을 통하여 公開的 接近政策이 表面化되었다. 이후 韓·蘇關係의 促進은 蘇聯側에서 韓國의 成功的인 經濟發展事例에 커다란 關心을 나타냄으로써 이루어지고 있다.

具體적으로 크라스노야르스크 演說에서 韓半島의 與件好轉에 따라 韓國과의 經濟協力 可能性이 열려 있다고 밝힌이래 兩國關係는 急速度로 密着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韓國의 對蘇接近은 韓國의 企業體들이 外交關係가 樹立되지 않은 蘇聯에 進出하면서 兩國의 間격을 좁히는데 많은 役割을 遂行하는데 起因하고 있다. 처음에는 韓國의 商品을 가지고 蘇聯에 進出하였고 이어서 企業들이 進出하였다. 이러한 企業들의 進出은 蘇聯이 西獨과의 關係를 正常化할 때 취했던 政經分離의 原則을 韓國에도 適用함으로써 商品과 企業을 매개로한 韓國과의 關係改善의 수위를 높일 수 있었다. 이러한 路線은 시베리아의 開發이라는 國家的 課題와 이를 成就하기 위한 脫理念的 實用主義 路線이 強化되면서 더욱 뚜렷하여졌다.³⁰⁾ 卽 蘇聯은 단순히 貿易의 相對者로서가 아닌 經濟的 協力國으로 韓國을 認識하기 시작하였다.³¹⁾ 蘇聯은 資源의 開發과 經濟發展을

註 30) 매일경제 신문, 「經協本格 始動 포석」, 1989. 7.25.

31) Ivan Sergeovich Korolyov, 「The Problems of the Soviet Union's Involvement in the World Economy and Economic Relations with Asia-Pacific Countries」, (KIIS : July 4-6, 1989, Seoul)

위하여 西유럽에서는 西獨을 통하여 技術과 資本을 받아 들이고, 東아시아에서는 韓國을 통하여 받아 들이고 싶다는 것을 누차 直·間接적으로 나타내었다. 이러한 兩國의 必要에 대하여 加速度를 붙여 준 것은 美蘇間에 追求하는 和解와 協力이라는 新데탕트의 氣流였다. 그리고 韓國의 盧大統領의 7·7 宣言은 이러한 潮流에 대하여 보다 確固하게 共產圈外交를 強化함으로써 共產圈과의 關係改善에서 突破口를 열었다. 헝가리와는 이미 國交를 正常化했으며, 蘇聯과는 올림픽이 끝난 直後인 1988年 10월에 蘇聯聯邦商議 副會長 골라노프(Golanov)가 訪韓하여 韓國의 貿易振興公社와 蘇聯聯邦商議間에 業務協力締結을 合意하였다. 이와 함께 韓國政府는 1988年 10月 政府의 施政方針 演說에서 다시한번 對蘇關係改善에 積極的인 姿勢를 보였다. 특히 盧大統領은 韓國 北方政策의 一環으로 韓·蘇間 經濟交流의 必要性을 強調하였다. 이후 兩國關係는 體育·文化人들의 交流와 各種 展示會開催, 經濟協力を 위한 韓國의 實業人들의 訪蘇 등 人的交流가 매우 활발하게 進行되었다. 1989年 4月 3日에는 韓·蘇間의 本格的인 經濟協力の 契機가 될 貿易事務所가 서울과 모스크바에 각기 開設되었는바, 그 要體는 다음의 「表-2」와 같다.

〈表 - 2〉 韓・蘇貿易事務所 開設推進現況

1988.10.	蘇聯商議 副會長 Golanov 訪韓時에 蘇聯邦商議와 韓國의 KOTRA 間 業務協力締結合議
1988.12.	韓國의 KOTRA 社長 訪蘇時 蘇聯邦商議와 韓國의 KOTRA 間 業務協定締結
1989. 1.	蘇聯邦商議 副會長 Golanov 氏가 貿易事務所開設合意를 위해 訪韓
1989. 4.	韓國의 KOTRA 가 蘇聯의 모스크바에 “Representation of Korea Trade Promotion Cooperation in USSR”란 名稱으로 貿易事務所 開設
1989. 4.	蘇聯邦商議가 韓國의 서울에 “Representation of the USSR Chamber of Commerce & Industry in Republic of Korea”란 名稱으로 貿易事務所 開設

Ⅶ. 새로운 蘇聯의 極東戰略과 韓國

1. 東北亞戰略과 世界

歷史的으로 考察해 볼 때 蘇聯은 極東地域을 重要視하지 않았었다. 極東地域은 政治·經濟·軍事등의 重要 部門에서 尙시 유럽과는 比較가 되지 않을 정도로 그 重要도가 미약하였었다. 中世의 몽고 침략을 除外한다면 蘇聯의 世界政策에 아시아가 包含된 것은 19世紀 中盤 크리미아 戰爭을 겪는 과정에서 英·佛의 연합함대에 대한 시베리아 太平洋 연안의 취약성에 눈을 떴을 때였다.

그리하여 1858年 아이군(Aigun)條約과 1860年 北京條約으로 아무르江 북쪽 領土와 連安지방을 獲得하였고, 1860年 7月 20日 “東方의 支配者”를 뜻하는 블라디보스토크 항구를 創設했을 때 아시아에서의 蘇聯의 位置는 부상하게 되었다.³²⁾ 그 後, 倭寇 아시아 問題에 對하여 당시 世界에 대하여 莫大한 影響力을 行使한 大英帝國과 汎世界的 競爭을 이루었던 것이다. 그러나 最近世에 蘇聯에서 아시아의 重要性이 크게 대두된 것은 獨逸과의 第2次大戰中이었다. 戰爭中 重要한 産業施設의 대부분을 極東地域으로 이동시켰으며 1945年 8月 8日엔 드디어 對日本戰을 시작하였다. 蘇聯은 日本이 점령하고 있던 만주와 北韓地域을 戰爭參與 수일만에 점유하

註 32) 姜聲鶴, 앞의 論文(1989.1), p.192.

였으며, 남사할린과 쿠릴열도의 4개 도서의 점령은 戰後 東北亞에 대한 蘇聯의 利害關係를 더욱 擴大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더욱이 戰爭이 채 끝나기도 前에 시작된 美·蘇間의 戰爭속에 進行된 中國의 內戰과 大陸의 共產化 및 6·25 동란은 아시아의 戰略的 重要性이 더욱 擴大되었다.

철권통치자인 스탈린의 死亡과 冷戰의 極인 6·25로 因하여 美國으로 하여금 對蘇 봉쇄조치를 당하는가 하면, 형제국으로 생각했던 中國과의 국경충돌은 蘇聯으로 하여금 이 地域에 대하여 유럽 못지않게 경계심을 갖도록 하였다.

월남에서의 美國의 패전으로 '70年代 初盤부터 일기 시작했던 테탕트는 蘇聯의 아프가니스탄 침공(1979.12)으로 新冷戰이 시작되어 소위「별들의 戰爭」이라 일컫는 美國의 戰略防衛計劃(SDI, 1983. 3. 發表)으로 蘇聯도 生存을 위한 軍備競爭에 突入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 그러나 美·蘇의 첨예한 軍備競爭은 兩國의 經濟에 치명타를 가했다. 이러한 일련의 狀況展開와 함께 고르바초프가 등장하면서 蘇聯은 國內改革을 서둘렀다.

이에 따라 國際氣流도 新테탕트 쪽으로 바뀌면서 資源의 寶庫인 아시아 開發의 必要性을 느끼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나온 것이 1986年 7月 28日 고르바초프의 블라디보스토크 演說인데 여기에는 이 地域에 대한 蘇聯의 새로운 관심사의 表現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다. 이를 간단히 要約하면,

첫째, 蘇聯은 아시아·大平洋 國家의 일원으로서 이 地域에

서의 政治 및 安保의 利害關係를 가진 나라이다.

둘째, 東北亞 地域의 活氣찬 經濟的 成長과 亞細亞 地域의 잠재적 經濟能力을 인정하여 이들 國家들과 通商關係 및 先進技術의 導入을 追求하고 이를 토대로 蘇聯 經濟에 活力과 革新을 도모한다.

셋째, 이 地域의 主要國家들과 正常化를 合意함으로써 힘의 均衡을 재조정한다. 特히 세계에서 제일 많은 人口를 가진 中國과의 雙務的 關係를 向上시킨다. 이는 中國이 1982年에 宣言한 소위 獨自的 外交政策의 追求를 加速化시키면서 中國과의 完全한 關係 正常化를 도모한다.

넷째, 평화공세를 취하여 韓·美·日의 삼각동맹체제를 누그러뜨림과 동시에 이 地域에 強力한 影響力을 미치고 있는 經濟大國 日本의 中立化를 도모한다는 內容이었다.³³⁾

이와같은 고르바초프의 開放政策의 일환으로 나온 블라디보스토크 演說은 그의 새로운 戰略으로 이 地域에서의 긴장의 緩和와 그 댓가로 얻어지는 經濟的 利益을 國內開發에 使用한다는 것이다. 特히 고르바초프는 월남전 이후 美·中國의 關係改善으로 굳어지는 美·中과 美·日간의 밀착에 썩기를 박음으로써 美國에 대하여 새로운 平和이미지 戰略을 展開하여

註 33) 國土統一院, 「고르바초프의 아시아政策關聯主要資料」, (國統調 87-2-11, 1987.3), pp.197-246.

軍事的 대결로부터 탈피하여 平和愛好國家라는 주도권 확보와 이를 바탕으로 落後된 經濟를 재건하겠다는 戰略이다. 이는 軍事戰略的 對決로부터 실리추구적 戰略일 뿐만아니라 全世界 政治를 주도하겠다는 글로발(Global)戰略인 것이다.

2. 東北亞戰略의 구체화

1988年 9月 16日 蘇聯共產黨 書記長 고르바초프는 極東의 크라스노야르스크에서 「아시아 太平洋地域에서의 安保와 平和를 위한 다음의 7個項」을 제안하였다.³⁴⁾

첫째, 아시아·太平洋地域 國家들의 뜻을 살피, 蘇聯은 이 地域에서 核武器를 증강하지 않을 것이다. 美國을 비롯한 核武器 保有國들에게 要求하건데 이地域에 더이상 核武器를 配置하지 말자.

둘째, 蘇聯은 이地域에서의 軍力の 減縮을 協議하기 위해 이 地域의 海軍함정을 歸還시키겠다.

셋째, 소비에트 社會主義聯邦共和國은 蘇聯 연안과 日本, 中國, 南韓등을 包含한 이 地域에서 軍事 대치를 緩和하는 問題를 各國의 立場을 充分히 尊重한다는 전제 아래 함께 論議할 것을 제안한다. 海軍力과 空軍力을 現在의 狀態에서 동결하거나 減縮하는 일 또는 軍事活動을 제한하는 일 등이 檢討되어야 할 것이다.

註 34) 國土統一院, 「고르바초프의 對外政策 資料集」, (國統調 88-11-75, 1988.11), pp.39-56.

넷째, 만약 美國이 필리핀 기지로 부터 철군하는데 同意한다면 베트남 政府의 同意아래 蘇聯도 淸潭灣에 대한 物質的 技術的 원조를 중단할 準備가 되어있다.

다섯째, 海洋航路와 航空運航의 安全을 도모하기 위해 공해상과 그 영공에서의 事故를 막기 위한 方案을 함께 講究할 것을 제안한다.

既存의 蘇美·蘇英協定과 蘇日美協定이 그 期間 동안 代替使用될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인도양을 平和區域으로 定하는 國際協的을 1990年 以前에 締結할 것을 提案한다.

일곱째, 아시아·太平洋地域 安保에 따른 協約機關을 만들것을 提案한다. 그 기구가 어떤 선상에서 어떤식으로 만들어 지는가는 상관없을 것이다. UN 安保理事會 상임국인 美國과 蘇聯, 中國과 함께 그 問題를 놓고 論議를 시작할 수도 있을 것이다.

고르바초프의 「크라스노야르스크」의 提案은 1986年 7月 28日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밝힌 “아시아”에 대한 政策構想을 보다 구체화시킨 方案이다. 이러한 그의 構想의 原則은 1969年 모스크바에서 開催된 「世界共產黨」大會에서 당시의 共產黨 書記長 브레즈네프가 제창한 아시아 集團安保構想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어쨌든 蘇聯은 아시아 - 太平洋地域의 開發에 最優先的인 努力을 기울이고 있다. 그것은 蘇聯의 極東地域에 매장되어 있는 豊富한 資源과 開發 잠재능력에도 불구하고 지

금까지 방치되어 있었다. 코르바초프가 이 地域을 開發하기 위한 일환으로 제의한 7 個項도 따지고 보면 蘇聯의 잡다한 民族問題가 이 地域에서는 問題가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찾을 수 있다. 蘇聯은 多民族國家로 約 200 餘民族이 살고있다.

各 民族들은 歷史, 言語, 文化, 生活習慣, 經濟生活等に 있어서 독자적인 特色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코르바초프의 開放·改革政策은 民族問題가 대두된 地域에서 장애가 많으나, 極東地域은 開發可能性이 많은 地域인데도 民族問題가 없으므로 이 地域에 대해 보다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사실 蘇聯은 시베리아 開發을 위하여 오랫동안 日本의 資本과 技術을 導入하려고 노력했다. 그 일환으로 두나라가 協力해서 시베리아 開發을 推進하였다. 그러나 蘇聯과 日本사이에는 第2次世界大戰時 蘇聯에게 빼앗긴 北方 領土에 대한 問題가 미해결 狀態인 채로 오늘날까지 이어 오고있다. 따라서 日本은 蘇聯에 대한 北方 4 個 島嶼의 반환을 相互協力の 전제조건으로 要求하곤 하였다.

그러나 소련은 이들 領土를 돌려주려 하지않는다. 이러한 關係로 두나라 사이의 協力關係는 一定限界가 있게 마련이고 成功을 거둔듯 하던 시베리아 開發事業도 踏步 狀態에 있다. 특히 中國이 實利的인 側面에서 開放과 改革을 지속할때, 그리고 그러한 政策이 成功을 거둔다면은 결국 中國은 19 世紀 러시아 帝國과 맺은 條約은 不平等條約이므로 그 條約에 의하여 讓渡한 領土의 返還을 要求하게 될 것이다. 이런

側面에서 본다면 中國의 近代化는 소련에게 결코 이롭지만은 않을 것이다. 더우기 紛爭狀態의 地域을 當事國끼리 協力하여 開發한다는 것도 現實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러한 현실적인 狀況에서 소련은 極東과 시베리아의 開發을 위해서는 이곳에 隣接한 어느 나라와도 協力關係를 맺지 않을 수 없는 狀況에 있다. 日本과 中國이 어렵다면 다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나라는 韓國이다.

3. 極東開發의 파트너로서의 韓國

韓國은 新興工業國으로서 資本과 技術을 兼備한 나라이다. 그렇기에 고르바초프는 크라스노야르스크 演說을 통해 韓國에 대해 두번 言及하였다. 그는 먼저 7個項中 세번째 言及한 大목에서 韓半島를 둘러싼 歷代 關聯國家들의 海軍 및 空軍力을 減縮하거나 活動을 制限하기 위해 多國間 會談을 열자고 提案하고 있다. 이 會談의 參席者는 소련, 北韓, 中國, 日本, 南韓으로 想定하고 있다. 다음으로 注目を 끈 부분은 끝部分에서 소련의 最高指導者로서는 처음으로 韓半島情勢의 전반적인 改善의 一環으로 韓國과의 經濟關係 可能性을 밝히고 있는 점이다. 東西關係의 힘의 均衡 次元에서는 소련이 韓半島와 日本列島・中國大陸의 華北地帶에 대한 緊密한 接近을 하지 않고서는 아시아 太平洋 地域에 대한 그들의 戰略的 進出은 不可能하다는 限界에 부딪히게 된다. 이러한 事實을 그들은 너무도 잘알고 있다. 여기서 나올 수 있는 代案이 이地域

의 火藥庫로 남아있는 韓半島에서의 緊張緩和를 이룩하는 것이다. 이러한 緊張緩和에 대한 가장 큰 障礙要因이 北韓이다. 그러나 소련은 政治的으로는 北韓의 立場을 支持하고, 經濟的으로는 實利를 追求하겠다는 政經分離의 原則 위에서 南韓과는 非政治的인 經濟關係의 增進을 圖謀한다는 見解이다. 同時에 소련은 韓半島에서의 緊張緩和를 원하고 있음을 分明히 하였다. 그렇게 함으로써 韓·蘇 關係增進에 北韓의 방해를 받지 않겠다는 戰略이다.

結果적으로 이러한 現狀維持 政策은 高르바초프의 世界政策과 亞細亞政策 그리고 韓半島政策과 南韓政策의 基本戰略으로 볼 수 있다.

VIII. 將來의 展望

1. 韓·蘇의 經濟關係

1989年4月3日 蘇聯의 駐韓貿易事務所가 서울시內에 있는 綜合展示場(KOEX)에 設置되었다.

이로써 지난 35年間の 단절의 벽을 뚫고 처음으로 韓國과 蘇聯은 公式적으로 直接 對話의 채널을 構築했다. 韓·蘇間의 本格的인 經濟協力 關係는 대략 2年前부터 推進되어 왔다.

최초 핀란드의 헬싱키를 시작으로 東京, 오스트리아 빈에 駐在하는 蘇聯의 通商代表部 및 聯邦商工會議所側과 韓國의 貿易振興公社가 꾸준히 接觸하였다. 이러한 接觸은 蘇聯의 「글라스노스트(開放)」政策에 따라 1988年부터는 加速度가 불기 始作하였다. 특히 蘇聯側은 現地를 방문하는 韓國企業人들에게 그 어느때보다도 好意的이었으며, 黨機關紙 等を 통해 對韓經濟協力 분위기를 造成하곤 하였다. 1988年 서울올림픽以後 韓·蘇間의 交易規模 및 展示會參加와 人士交流가 매우 活潑하였다.

1984年에 5千萬달러 水準에 머문 交易規模는 1988年에는 約1億8千萬달러로 아래와 같이 擴大되었다.

「表-3」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1987年度 總交易量은 1億6千萬 달러로 前年度對比 무려 87.4%나 增加하였다. 이러한 量은 共產國家와의 總交易量의 11.2%에 該當된다. 또한 「表-4」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1988年末부터 韓國의 商業銀行과 外換銀行이 蘇聯의 모스크바 나로니 銀行과 코

〈表-3〉 韓·蘇間의 交易規模

單位：百萬달리

年 度	輸 出	輸 入
1984	2,619	3,105
1985	5,967	6,232
1986	4,989	6,388
1987	6,723	9,700
1988	2,459	14,360

資料：KOTRA 實查統計, 88 年은 關稅廳統計

〈表-4〉 韓·蘇間 Bank Corres 締結現況

韓國側銀行	蘇 聯 銀 行	所 在 地	締結日字
外換銀行	The Bank for Foreign Economic Affairs of the USSR	모스크바	1988.12.19
外換銀行	Donau Bank (The State Bank of the USSR와 The Bank for Foreign Economic Affairs of the USSR이 공동출자한 現地法人)	비엔나	1988.11.8
商業銀行	The Bank for Foreign Economic Affairs of the USSR	런던支店	1988.12.22
商業銀行	Moscow Narodny Bank Ltd.	싱가폴支店	1988.12.14
서울信託銀行	The Bank for Foreign Economic Affairs of the USSR	모스크바	1988.12.19
朝興銀行	Bank for Foreign Economic Affairs of the USSR	모스크바	1989.1.11

레스 契約을 締結함으로써 여러問題들이 하나하나 解決되어 나감으로서 앞으로의 交易量의 擴大는 매우 順調롭게 進行될 것이다. 특히 兩國間的 貿易事務所設置, 釜山과 블라디보스토크를 잇는 直港路開設(블라디보스토크와 유럽을 連結하는 시베리아 橫斷鐵道: TSR)을 利用할 경우 海上運送에 比해 1週日以上 運送期間이 短縮됨에 따라 소련은 韓國의 對유럽 輸出貨物 運送에도 漸次 比重이 커질 것이다. 換去來契約 및 蘇聯內에서 開催되는 國際展示會와 博覽會 參加와 이에 따른 連絡事務所 設置推進등은 政治的關係改善의 擔保상태와는 달리 相當히 活氣를 띠고있고, 앞으로도 더욱 發展될 것이다.

2. 東北亞情勢와 韓·蘇

고르바초프가 追求하고 있는 改革과 開放政策은 政治·經濟 社會 및 國際關係를 包含한 모든 領域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經濟를 中心으로한 實用主義的 外交路線의 採擇으로 世界의 經濟秩序와 政治秩序를 再編시키고 있다. 고르바초프의 이름보다도 더 잘알려진 「Perestroika」에 담겨진 新思考로 代表되는 그의 外交政策은 平和共存과 相互協力을 基本路線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60年代와 70年代의 데탕트와는 그 性格이 현저히 다르다. 60年代와 70年代에 美蘇兩國은 그들의 패권적 位置를 維持한채 兩國이 相互利益을 위하여 共存하겠다는 바탕위에서 데탕트를 試圖했었던 것이다. 그러나 80年代

중반이후의 데탕트는 相互協력이 添加되어 있다. 오늘날의 世界는 人類가 그 어느때도 經驗하지 못했던 많은 일들이 한꺼번에 우리앞에 나타나곤 한다. 그러한 일들은 과학기술에 의하여 야기되고, 惹起된 問題도 科學技術에 의하여 解決하여야만 된다. 따라서 科學技術은 종래의 理念中心의 國際社會秩序를 마구 흔들어 놓았다. 따라서 얼마전 까지만 해도 資本主義體制와 社會主義體制의 共存 不可를 내세운 레닌의 外交路線과 比較할때 고르바초프의 外交路線이나 思考는 큰 變化임에는 틀림없다. 이러한 外交路線은 美·蘇兩國 뿐만아니라 全世界를 데탕트의 氣流속에 머물게 할 것이다. 그러나 蘇聯의 고르비초프體制가 무너지거나 얕타協約이 破棄되어 東구라파 國家들이 蘇聯의 影響圈을 벗어날 때 世界의 데탕트는 깨어질 수 밖에 없다. 곧 東구라파의 不安은 아시아의 不安으로, 아시아의 不安은 東구라파의 不安으로 連結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突發事態를 除外하고는 世界에서 일고있는 데탕트 물결은 順航을 계속할 것이다. 이러한 데탕트의 순항속에 東北亞 情勢와 韓·蘇關係를 豫測해 보면 다음과 같이 要約해 볼 수 있다.

첫째, 中國과 蘇聯의 關係는 1989年 5월에 開催되었던 頂上 會談의 友誼를 바탕으로 과거적이지는 못할것이나 점차 改善되어 나갈 것이다.

둘째, 日本은 앞으로도 계속 經濟力에 의한 實利的 外交를 취하면서 서서히 美國의 影響圈으로부터 獨自的 路線을 擇하려 할 것이다. 물론 日本은 第2次大戰後 실추됐던

그들의 位置를 점차적으로 부각시키려 할 것이다. 그러나 世界는 經濟的 實利를 위해 불럭화해가는 過程에 있으므로 더욱 保護貿易的인 障壁이 거세어 질 것이고 그와 더불어 日本의 부각에 中·蘇兩國은 물론 東南亞 各國들도 日本에 대한 警戒를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다. 세째, 冷戰의 產物인 分斷克服을 위해서 蘇聯의 新思考로 일컬어지는 外交路線은 韓國의 北方政策에 크나큰 活力素를 提供할 것이다. 強力한 反共政策에 의한 統一政策은 점점 그 빛을 잃어갈 것이다. 반대로 蘇聯과 中國에 대하여 人的 物的 交流를 增大시킴으로써 北韓으로 하여금 서서히 門戶를 開放하게끔 壓力을 가할 것이다.

〈表 - 5〉 韓·蘇間의 人士交流 現況

區分 \ 年度	1985	1986	1987	1988	1989
韓國 人士 訪 蘇	5	6	31	240	-
蘇聯 人士 訪 韓	-	-	-	26	-

네째, 經濟關係를 中心으로 再編되어가는 國際秩序는 새로운 國際關係를 가져올 수 있는 계기를 韓半島에 提供할 것이다. 그러한 提供을 잘만 利用한다면 現在의 韓·蘇間에 開設하고 있는 貿易事務所는 韓·蘇間의 國交正常化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일부에서는 獨·蘇間의 國交正常化 期間을 例로 들면서 가까운 狀來에 實現되기 어려운 問題로 생각하

는 사람도 많으나 적어도 筆者가 보기로는 그렇게 긴 時間을 要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오늘날의 世界情勢는 60年代末이나 70年代 初와는 比較가 될 수 없을 정도로 그 變化의 幅과 範圍가 매우 넓고 빠르며 持續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韓·蘇間의 關係改善은 攄고무적으로 보인다.

다섯째, 美國의 役割로서, 美國은 지금까지 韓國을 反共의 最前線에 내세웠고 지금도 그러한 思考에는 變함이 없는 것 같다. 그러나 韓國은 이제 經濟적으로나 技術적으로 落後된 後進國은 이미 아니다. 더우기 80年代들어 韓國人들의 意識 轉換은 高르바초프의 新思考 못지않게 새로운 狀況을 展開하고 있다. 따라서 美國은 韓國을 단 순히 美國의 影響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데 力點을 둘것이 아니라 韓國人 스스로 美國편에 설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다. 그렇게 도와주는 일이 다름아닌 韓國과 蘇聯의 關係正常化에 協力하여 주는 일이다. 그 協力도 積極적으로 그리고 이니시어티브를 쥐고 나설때 可能하리라 본다.

이제 美國·蘇聯·中國·日本 및 EC國家들을 비롯한 世界의 모든 國家들은 변모된 國際社會에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발상 전환에 분주하고 있다. 소위 脫產業社會가 人類에게 要求하는 多樣化의 물질은 多樣한 새로운 사고를 要求하고 있다. 이러한 새롭고 多樣한 사고를 어떻게 生成하고 管理하며

利用할수 있는 霧圃氣를 잡아 나가느냐 하는 것이 韓國과 蘇聯의 關係改善의 주춧돌이 될것이며, 이는 곧 斷絶된 南北韓關係改善에도 많은 도움을 줄것으로 믿는다.

※ 附錄(韓·蘇關係 主要日誌)

1972. 7. 4.

蘇聯은 南北共同聲明에 基礎한 南北對話를 크게 歡迎.

1973. 5. 20.

모스크바에서 開催된 유니버시아드大會에 蘇聯은 北韓의 反對에도 不拘하고 韓國팀을 招請, 歡迎.

1973. 6. 15.

全經聯 金容完會長과 天友社 金澤珣社長이 民間人으로서는 처음으로 蘇聯에 入國.

1975 年부터 韓·蘇間 第3國을 통한 貿易協商을 開始.

1976 年 8 月 板門店에서 일어난 도끼만행사건을 2 주일이 지난 후에야 客觀的이고 事實的으로 報道.

1977 年

- كام차카 水域에서 잡은 명태를 日本을 통해 韓國側이 購買하도록 提議.
- 蘇聯의 그루지아 共和國 트빌리시에서 열린 유네스코會議에 駐프랑스 大使 外 6 名에게 비자 發給.

1978. 4.22.

大韓航空(KAL) 民間旅客機가 北極航路를 飛行中 蘇聯領空 侵犯 혐의로 蘇聯 西北部 무르만스크에서 450 km 떨어진 카렐리야共和國 캄邑 부근의 湖水에 強制着陸.

1978. 4.24.

韓國의 朴正熙大統領은 무르만스크에 추락한 旅客機의 乘客 과 乘務員들을 지체없이 送還해 준데 대해 고마움을 表示.

1978. 5.30.

朴東鎮 外務部長官이 蘇聯에 殘留中이던 KAL機 金暢圭 機長과 이근식 항법사의 석방에 대하여 蘇聯 當局에 謝議를 表明.

1978. 8.11.

蘇聯 모스크바에서 8月15日부터 8月25日까지 開催되는 유니버시아드大會에 韓國은 蘇聯과 國交가 없는데도 不拘하고 史上 처음으로 38名의 選手團을 蘇聯에 派遣.

1978. 9. 5.

外務部 發表에 의하면 7月28日 東海上에서 오징어 잡이를 하다가 蘇聯의 2百海里 漁業專管水域을 侵犯했다는 理由로 蘇聯 海岸警備隊에 나포되었던 第3 광호가 抑留 39日만에 罰

金 127,500 \$ 相當을 支拂하고 釋放 .

1978. 9. 6.

申鉉禧 保社部長官이 蘇聯 中央아시아 카자흐 共和國 首都 알마타시의 레닌宮에서 열린 世界保健機構(WHO)와 유엔兒童基金이 共同 主擧하는 世界 保健醫療會議에 參席次 韓國閣僚으로서는 처음으로 記者 2名을 대동하고 蘇聯에 公式 入國 .

1978.10. 7.

蘇聯 中央아시아의 투르크멘 共和國 首都 아시하바드에서 열린 國際自然保存聯盟(IUCN)第14次 總會에 이민재 江原大學校 總長 外 4名의 韓國代表團이 9月26日 開幕되는 會議에 公式的으로 參席 .

1979. 4.25.

0時를 기해 韓·蘇間 國際電話線路가 개설되어 이후로는 第3國을 거치지 않고 런던을 경유, 直接 통화할 수 있게 되었다고 정덕교 대변인이 公式發表.

(지금까지 韓·蘇間的 國際電話는 1978年 8月31日부터 9月14日까지 레닌그라드에서 開催되었던 第8回 세계여자배구선수권대회 기간중 日本의 중계로 이루어진 것등 非公式通話뿐이었음.)

1979. 5.22.

駐日 蘇聯大使館은 金玟熙 東亞日報 體育部 記者와 中央日報 노진호기자에게 5月25日부터 5月28日까지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43次 世界體育記者總會에 韓國體育記者關聯會長 資格으로 參席할 수 있도록 비자를 發給.

(이보다 앞서 韓國記者로서 처음으로 소련에 入國하게 된 例는 1978年 8月 알마타시에서 열린 世界保健機構(WHO)總會를 取材하기 위하여 入國비자를 받고 들어간 두명의 유엔本部 出入記者가 있었음. 그러나 韓國에서 直接 蘇聯에서 開催되는 행사에 取材次 비자申請을 하여 入國사증이 발급된 것은 이번이 처음임.)

1979. 5.25.

蘇聯에서 開催되는 國際體育記者聯盟(AIPS)總會에 朝鮮일보 金玟熙記者와 中央日報 노진호記者에게 入國사증 發給.

1979. 5.30.

韓·蘇 스포츠 交流를 위하여 韓國유도연맹회장인 辛道煥씨와 소련각료회의 스포츠 위원회 부위원장 겸 소련 올림픽 위원장 빅토르 이보닝과 日本 東京에서 만나 相互 意見交換.

1979. 7.28.

오징어잡이어선 삼광호를 200해리 어업수역의 침범이유로

나포했다가 1979年 9月 4日 선장 馬京淑씨등 선원 34名
全員을 석방.

1979. 9. 8.

韓國의 박동진 外務部長官은 MBC-TV와의 會見을 통하여
蘇聯이 世界戰略을 펴는데 있어서 經濟·軍事·政治적으로 점
점 重要性을 增加시키고 있는 韓國의 存在를 東北亞에서 무
시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蘇聯과의 無理없는 關係改善을 希望.

1979. 9.13.

서울大 植物學者 李仁圭教授와 蘇聯의 科學아카데미 極東研
究所海洋生物研究部 研究委員인 발렌티나 F. 마키엔코와 日本
북해도 大學 구로키교수는 감차카반도 海域의 홍조에 관한 共
同研究를 하기로 合意. 이로써 韓·蘇 科學者間의 첫번째
共同研究를 하게 되었음.

1979. 9.14.

핀란드를 訪問中인 外務部長官 박동진은 핀란드 外務長官
에스코 레갈로 貿易相, 마우나 首相 코이비스토에게 蘇聯 및
동구권과의 貿易擴大 및 關係改善에 協調해 주도록 要請.

1979. 9.27.

韓國과 핀란드간에 合作會社를 設立하여 蘇聯과의 間接交易
으로 轉換하기 위한 준비조치를 함으로써 民間交易 方案을 摸索.

1980. 1. 29.

蘇聯 모스크바에서 開催될 第22回 夏季올림픽大會組織委員會로부터 1980年 7年 19月부터 8月 3日까지 大會 및 行事に 參加토록 초청장을 國際올림픽委員會(IOC)를 통해 接受받았다고 大韓올림픽委員會(KOC)가 밝힘.

1981. 8. 4.

1981年 7月 23日 울릉도 동북방 240 마일 支點에서 蘇聯에 나포된 염기호가 나포 7日만에 船長 朴壽伯씨를 비롯한 선원 10명 전원을 釋放했다고 外務部가 發表.

1981. 6. 22 - 6. 26

蘇聯 모스크바에서 열린 世界貿易센터협회(WTCA) 第12次 總會에 參席했다가 歸國한 金禹根 賀協 副會長等 代表團은 蘇聯의 責任있는 當局者들에게 直交易을 제의했다고 發表함.

1981. 10. 24.

日本 아사히新聞은 모스크바의 서방소식통을 인용하여 최초의 中·蘇接近 움직임과 관련하여 蘇聯은 原則的으로는 北韓이 主張하는 平和統一을 지지하고 있으나 現實的으로는 이의 實現可能性이 稀薄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반면 極東의 對蘇軍事 포위망의 前線基地로서 韓國이 蘇聯에 대한 위협이 되고 있기 때문에 北韓과의 일방적 交流를 넘어 韓國과의 關係改

善을 檢討한 것으로 보도, 蘇聯의 이같은 韓國接近 움직임은 韓國戰爭以後 韓半島에 特別한 關心을 갖고 있는 中國과의 사전협의 없이는 어려운 問題로 보인다. 따라서 蘇聯 高官의 訪韓은 中蘇가 接觸을 갖고 極東의 긴장타개를 함에 일정한 이해의 일치를 본 것에서 出發한 것으로 보임.

1982. 1.23.

全斗煥大統領은 北韓에 대하여 統一憲法制定 제의를 함과 同時에 지금까지의 未修交國家들에게 이를 積極 弘報하는 과정에서 全方位統一外交를 적극 유도하는 演說을 행함.

1982. 6.23.

韓國政府는 6.23 平和統一宣言 9주년을 맞이하여 對共產圈 문호개방정책을 活性化하기 위해 中國, 蘇聯, 東獨, 불가리아, 알바니아, 몽고, 베트남등 7個 共產圈 國家를 包含 18個國에 便益關稅* 惠澤을 주기로 했다고 發表.

1982. 8.12.

8月 16日부터 8月 25日까지 개최되는 第18次 國際鳥類會議에 경희대 元旼교수등 5名이 參席.

※ 便益關稅란 GATT (關稅와 貿易에 관한 일반협정) 회원국 및 雙務貿易 協定 체결국 등 最惠國 대우를 받는 나라 이외의 國家에 대해 특별히 一방적으로 關稅讓許稅率을 적용해 주는 制度임.

1983. 4.13.

日本을 訪問中인 蘇聯의 副外相 미하일 카피차는 4月 12日 日本 外務省에서 열린 第3回 日蘇實務會議에서 한반도 문제에 대해 蘇聯은 北韓과의 關係改善을 계속 推進中에 있다고 말하고 蘇聯은 韓國을 승인하지 않을 것이며 남북교차승인에도 절대 應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함.

1983. 6.29.

이법석 外務長官은 國方大學院에서 “先進祖國創造를 위한 外交課題”라는 제하의 演說을 통하여 1980년대 韓國의 최대 外交目標은 韓半島內에서의 戰爭을 防止하는데 있으며 蘇聯 및 中共과의 關係를 정상화하는 國防政策의 實現에 있다고 말함.

1983. 9. 1.

뉴욕에서 앵커리지를 거쳐 서울로 비행하던 대한항공 KAL 007편 747점보 旅客機가 사할린附近 上空에서 蘇聯 戰鬥機의 미사일 공격을 받고 추락하여 乘客과 乘務員 全員이 死亡함.

1985. 3.27.

蘇聯은 韓國과의 國交가 없는 상태에서 사상 처음으로 蘇聯의 피겨 스케이팅 選手團을 서울에 派遣.

1986. 1.15.

蘇聯은 사할린 居住 韓國人의 出國 및 歸國問題에 대해 유대인 方式으로 許容할 것이라고 日本政府 소식통이 發表 .

1987. 1.19.

崔尙洙 外務長官은 1月 19日 전대통령에게 '87年 主要 業務計劃을 報告하면서 中共·蘇聯 및 東歐圈 등 共產圈 國家와 의 關係改善에 努力할 것이라고 밝힘 .

1987. 3.23.

東京주재 蘇聯外交소식통은, 韓國政府가 南北韓 總理會談을 제 의, 南北對話가 재개될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데 대해 환영 을 표시.

1987. 3.25.

美國務省은 蘇聯軍事力에 관한 年例報告書에서 '84年 중반 이 후의 蘇聯 北韓關係改善이 蘇聯의 對아시아政策 가운데 가장 중요한 양상의 하나라고 지적 .

1987. 4.18.

崔尙洙 外務長官은 日本의 아사히 新聞과 會見에서 韓國은 中共 蘇聯과의 관계개선을 「非政治的 部門으로부터 서서히 쌓아 나가겠다」고 밝히고 中·蘇 및 東歐圈 國家의 서울올림

픽 參加에 樂觀的 견해를 表明.

1987. 5.18.

蘇聯太平洋 함대는 작전해역을 증진 東海로 부터 太平洋에까지 擴大, 계속 活潑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니혼게이사이 新聞이 日本防衛廳 소식통을 인용 보도.

1987. 5.27.

蘇聯수상·니콜라이 이즈코프는 蘇聯은 내년 서울올림픽에 參加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日本言論들이 모스크바發로 보도.

1987. 7.27.

蘇聯올림픽委員會는 콜로소프 副委員長 等 蘇聯올림픽委員會 代表團 9名이 서울올림픽 準備狀況視察 및 實務協議次 26日 오후 서울에 到着했다고 發表.

1987. 8.12.

蘇聯, 제네바에서 進行中인 美蘇中距離 核戰力協商에서 北大西洋條約機構 國家들의 軍事施設 뿐만 아니라 韓國 및 日本 등 美軍基地에 대하여도 査察과 檢證을 要求하고 있다고 日本의 毎日新聞이 報道.

1987. 9.18.

사마란치 IOC委員長, 올림픽大會의 具現과 서울올림픽의 成功을 위해 고르바초프 蘇聯共產黨書記長과 面談을 希望.

1987.11.21.

蘇聯의 한 高位官吏는 최근 蘇聯이 '88 서울올림픽에 參加할 뜻을 示唆했다고 한 소식통이 전함.

1987.12.12.

蘇聯, 아시아 太平洋地域 問題들은 相互平等과 불간섭의 原則下에서 協商을 통해 解決될 수 있다고 主張.

1987.12.15.

蘇聯極東軍, 아직 存在와 活動狀況이 밝혀지지 않은 최신에 최대 特殊情報艦이 配置된 事實이 確認되었다고 日本防衛廳이 밝힘.

1988. 1. 1.

사마란치 IOC委員長, '88年 서울올림픽은 蘇聯等 共產圈 國家도 參加하는 사상 최대의 祭典이 될 것으로 確信한다고 말함.

1988. 1.12.

○ 蘇聯官營 타스 通信, 蘇聯이 오는 9月 서울에서 開催될 第24回 서울 夏季 올림픽에 參加할 것을 公式 發表했다고 報道.

○ 政府, 中·蘇等 未修交 共產圈 國家들이 自國의 航空機나 船舶을 利用, 直航路로 서울올림픽에 選手團을 派遣할 경우에도 가급적 불편을 주지 않도록 入國을 許容하는 方案을 마련중 이라고 發表.

1988. 1.13.

政府, 蘇聯을 비롯한 共產圈 國家들의 서울올림픽 參加를 契機로 美國等 友邦 國家들과 緊密히 協調, 서울올림픽의 成功的 開催는 물론 韓半島의 平和定着을 위한 積極적인 對北韓政策을 推進할 方針임을 闡明.

1988. 1.14.

蘇聯의 '88 올림픽 參加 決定, 韓國과 中共, 蘇聯 및 東歐 國家들 사이에 進行中인 非公式關係에 推進力이 될 것이라고 크리스천 모니터紙가 報道.

1988. 1.26.

政府, 中共 및 東歐圈 等 未修交 共產國과의 通商擴大를 위해 貿易事務所를 交換 設置하는 等 積極적인 交易擴大方案

을 마련, 推進키로 決定.

1988. 1. 27.

政府, '88 서울올림픽을 契機로 中國 蘇聯을 비롯한 東歐圈 國家들의 選手往來가 活潑해지고 交易增大가 豫想됨에 따라 未修交 東歐共產國家에 대한 觀光交流 方針을 세우고 적당한 時期에 北方交流政策도 推進키로 言明.

1988. 2. 6.

韓國, 現在 東歐圈 및 中國과의 關係改善과 經濟 觀光 文化交流 增進을 위해 전면적인 外交攻勢를 펴고 있다고 뉴욕타임스紙가 報道.

1988. 2. 24.

韓國과 蘇聯, 사실상 직접 去來하는 상당규모의 貿易을 하고 있다고 교도通信이 報道.

1988. 3. 2.

蘇聯의 그라모프 體育相, 蘇聯의 서울올림픽參加는 기정사실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말하고, 모든 會員國들의 參與를 強調했다고 타임스紙가 報道.

1988. 3.12.

사할린 居住同胞들 韓國訪問에 대해 蘇聯赤十字社와 外務省當局者가 肯定的 反應을 보였다고 홋카이도新聞이 報道.

1988. 3.28.

蘇聯, 韓國等 蘇聯과 外交關係를 맺고 있지 않는 國家들을 包含한 아시아 太平洋地域과의 雙務 및 經濟協力關係를 專擔할 國家委員會를 政府에 新設할 方針임을 表明.

1988. 3.31.

蘇聯과 中國, 오는 9月の 서울올림픽 開催 以後 韓國에 貿易事務所를 開設할 것이라고 東歐圈 소식통이 밝힘.

1988. 4. 1.

韓·蘇關係, 解氷雰圍氣가 돌고 있는 가운데 蘇聯의 페레스트로이카(改革)政策을 背景으로 사할린 殘流 韓國人들의 本國 家族들과의 再會 움직임이 活潑히 進行되고 있음을 도쿄의 한 新聞이 報道.

1988. 4.11.

日本방위청, 蘇聯은 고르바초프공산당 서기장의 집권 이후 美蘇중거리 核戰力 廢棄協定 등 軍縮雰圍氣와는 달리 極東軍을 꾸준히 증강시켜 온 것으로 밝힘.

1988. 4. 12.

韓國, 美, 日 양국에 크게 의존해 온 수출시장의 다변화와 對共產圈關係強化를 위해 中國과 蘇聯 양국과의 경제 관계를 擴大하고 있다고 美國의 비즈니스 위크紙가 報道.

1988. 4. 28.

蘇聯의 로가초프次官, 韓國의 새政府로부터 南北韓對話를 위해 유연성있고 融通性있는 對北提議가 있는지의 여부에 關係 관심을 표명했다고 外交消息통이 말함.

1988. 5. 6.

蘇聯, 韓國을 포함한 세계 어떤 나라와도 경제 교류를 할 용의가 있다고 고르바초프 정권의 외교정책 브레인인 소련의 세계 경제 국제 관계 연구소장이 밝힘.

1988. 5. 13.

서울올림픽 前後期間, 蘇聯의 아에로 플로트 항공기가 서울에 임시 취항하게 되며 우리나라의 대한항공 전세기도 동구 공산국가에 임시 운항하게 됨.

1988. 6. 1.

政府, 蘇聯·中共 등 공산권 국가들의 개방화 추세에 발맞추

어 자유진영과 이들 공산국들과의 교량역할을 할 대규모 국제중계공항건설을 추진키로 결정.

1988. 6. 2.

美蘇정상회담, 세계지역 紛爭問題의 하나로 韓半島問題를 토의, 「開發되지 않은 기회이용을 지지하고 있음을 표명했다」고 고르바초프 蘇聯共產黨 書記長이 밝힘.

1988. 6. 6.

蘇聯당국, 사할린 잔류 韓人들의 일시귀국을 許可하는 問題에 대해 肯定的인 反應을 보인 것으로 도쿄신문이 보도.

1988. 6. 7.

蘇聯, 지난 모스크바頂上會談때 서울올림픽 기간중 韓半島緊張緩和를 위해 美國과 北韓이 직접 接觸해야 한다는 의견을 美國側에 제안했다고 蘇聯 외무성이 밝힘.

1988. 6.29.

고르바초프 蘇聯共產黨 서기장, 蘇聯政治制度의 근본적인 改革을 促求하고 연방 최고 소비에트의 간부회의장이 국내의 정책집행을 指揮하고 軍을 통수하며 수상을 임명하는 국가원수로서의 실질적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

1988. 7. 8.

韓國政府는 올림픽대회기간동안 蘇聯 등 15개 미수교국가의 10인이상 團體觀光客은 법무부 장관의 승인없이 재외공관에서 발행하는 外國人 入國許可書만으로도 입국이 가능함을 밝힘.

1988. 7. 12.

7.7 大統領特別宣言 후속조치의 하나로 蘇聯을 포함한 東歐圈 공산국가들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對東歐圈接觸窓口를 보다 공식화하기 위해 EC에 통상대표부를 설치할 計劃.

1988. 7. 16.

崔侑洙 외무부장관, 中國·蘇聯 및 東歐圈 국가들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韓國의 北方政策推進에 北韓이 적극 협력해 줄 것을 促求.

1988. 8. 17.

올림픽 參加 蘇選手團, 대회기간동안 대우그룹으로부터 支援 받는 미니버스 등 36점의 장비를 본국에 반출해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올림픽조직위에 要請.

1988. 8. 17.

韓國과 蘇聯, 서로 상대방의 선수나 코치 등의 체재비를 대신 부담해 주기로 합의해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양국의 스

포츠 교류가 활기를 띠 전망.

1988. 9. 3.

- 蘇聯, 새로운 외교정책으로 자국太平洋艦隊 母港인 블라디보스토크港을 개방하게 된다고 이즈베스티야지가 보도.
- 노태우대통령, 蘇聯 불쇼이 발레단과 蘇聯발레스타의 來韓공연을 시발로 韓·蘇間의 文化交流가 증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함.

1988. 9. 6.

- 蘇聯영사단, 大韓貿易振興公社 社長을 방문하고 상호무역사무소 개설문제를 타진한 것으로 알려져 올림픽을 전후, 韓·蘇通商協力協商은 큰 진전이 예상.
- 金浦空航, 서울올림픽을 맞아 蘇聯國營항공사의 일류신 IL 76기를 비롯, 서울의 하늘에도 세계 각국의 항공기가 잇따라 날아들어옴.

1988. 9. 16.

고르바초프 蘇聯共產黨 서기장,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안보증진과 협력강화를 위한 7개항의 평화안을 발표하고 韓國과의 경제교류관계가 개선될 수 있다고 강조.

1988. 9. 19.

모스크바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예술의 전당에서 연주 첫곡

으로 차이코프스키의 환상서곡 로미오와 줄리엣을 연주, 서울 청중과 첫 대면.

1988. 9.20.

蘇聯, 韓國과 외교관계를 수립하지는 않을 것이나 東歐 각국의 對韓 접근에는 반대하지 않고 있다고 산케이 신문이 보도.

1988. 9.24.

조지 솔츠美國防長官과 에두아르트 세바르드나제 蘇外務長官, 워싱턴에서 회담을 갖고 서울올림픽의 순조로운 개최에 만족을 나타내고 韓半島의 緊張緩和方案에 관해 의견을 교환.

1988. 9.26.

- 美蘇, '88 서울올림픽이 끝난 후 양국간의 고위외교실무 회담을 열어 韓半島의 緊張緩和를 위한 美蘇間의 역할문제를 협의키로 한 것으로 알려짐.
- 蘇聯 러시아공화국 각료회의, 동해안과 접한 極東沿海地域의 특별지위를 廢止했다고 소련관영 타스통신이 보도.

1988. 9.28.

蘇聯, 올림픽기간중 서울에 開設된 올림픽代表部가 6個月前에 設置되어 實質的으로 蘇聯代表部로서의 外交活動을 해왔으

며 올림픽 以後에도 이름을 바꾸어 繼續 存續하게 될 것이
라고 산케이신문이 報道.

1988.10. 4.

蘇聯共產黨中央委員 유프게니 프리마코프, 蘇聯極東港口 블라
디보스토르크를 外部世界에 紹介한 國際會議를 마감하면서 그같은
禁止區域은 廢止돼야 한다고 主張.

1988.10. 6.

蘇聯, 시베리아開發 등 極東地域의 經濟發展을 위해 日本보
다는 오히려 韓國이 積極 參與, 資本投資와 함께 技術도 提
供해 줄 것으로 期待하고 있다고 大公報가 報道.

1988.10.11.

蘇聯, 日本보다 오히려 韓國 臺灣 등 新興工業國 地域
(NICS)이나 東南亞國家聯合(ASEAN)과의 經濟協力을 중
시하고 있다고 지지통신이 報道.

1988.10.12.

이즈베스티야紙, 韓半島에는 2개의 國家가 存在하며 蘇聯이
韓國과 關係改善을 推進하는 것은 當然한 일이라고 政治評論
家 알렉산드로 보빈이 말함.

1988.10.17.

韓蘇 兩國, 通商協力을 增進키 爲해 早速한 時日內에 貿易 事務所를 交換 開設키로 合意하고 이에 關한 比目錄을 交換.

1988.10.19.

盧泰愚大統領, 유엔總會 本會議에서 東北亞에 持續的인 平和 와 繁榮의 바탕을 構築하기 爲해 美國, 蘇聯, 日本, 中國 및 南北韓 等 6 個國으로 構成되는 東北亞平和協議會를 갖자고 提議.

1988.10.26.

蘇聯, 開發이 뒤져있는 極東地方에 工場과 住宅을 세우고 港灣施設을 整備하기 爲해 韓國企業을 誘致해야 한다고 東洋 學研究所가 主張.

1988.10.29.

韓蘇經濟關係, 北韓側의 反對에도 不拘하고 繼續될 것이며 蘇聯極東地域에서의 韓蘇 兩國의 合作事業도 可能할 것이라고 산케이新聞이 報道.

1988.10.31.

蘇聯, 極東地域에 構想하고 있는 經濟特區 豫定地로 나훗카 港을 中心으로 포그라니츠니地區 하산지구 등을 고려중이라고

마이니치新聞이 報道.

1988.11. 2.

蘇聯, 韓國과의 經濟協力分野에서 可能的 여러가지 청사진을 提示하고 있어 興味를 끌고 있다고 日本의 아사히 新聞이 報道.

1988.11.28.

美蘇外務次官會談, 蘇聯은 韓國과의 外交關係를 맺을 意思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고 日本의 산케이新聞이 報道.

1988. 1.18.

蘇 極東經濟特區 15 곳 檢討, 科學院幹部 訪日會見 北韓 집경 몇 곳 具體化, 23일 訪韓 兩國交流 論議.

1989. 2. 1.

韓·蘇, 美·北韓 對話通路, 고르바초프 蘇聯共產黨書記長의 外交政策 設計者로서 韓蘇關係改善 主役中の 하나로 알려진 「게오르기·아르바토프」蘇聯 美·캐나다 研究所所長은 지난 달 31일 韓國의 北方政策에 대해 韓半島 緊張緩和에 損害를 가져오지는 않을 것이며 現在狀況을 正常化시키고 부분적인 對立을 緩和시키기 위한 어떠한 措置도 歡迎한다고 말함.

1989. 2. 3.

蘇聯은 韓國과 修交안해, 헝가리와 의 전례를 따라 韓國과 外交關係를 樹立할 意向이 없다고 蘇聯 外務部 代辯인이 밝힘.

1989. 3.23

- 모스크바에 있는 蘇聯國立 레닌圖書館은 韓國圖書館들에 圖書 및 資料交換을 갖자고 正式으로 提案.
- 日本 外務省에서 있었던 日蘇外務部局長級 協議에서 사할린 殘留 韓國人의 肉親再回 및 歸還問題 등에 관해 意見을 交換하고 이에 대해 蘇聯側은 韓國人의 蘇聯旅行은 觀光旅行이면 問題가 없다고 말하고 日本側 提議에 對體的인 同意를 보임.

1989. 3.28.

蘇聯外務次官 이고르 로가초프는 27日 蘇聯은 韓國과의 貿易 合作投資 등 外交關係를 원치 않는다고 말함.

1989. 5. 4.

蘇聯, 極東地域 開發에 關心을 보여, 香港式의 自由貿易地帶 設置를 檢討하고 있다고 월 스트리트 저널이 報道.

1989. 5. 8.

蘇, 極東地域 開發에 韓·中과 協力할 것을 시사함.

1989. 5.11.

蘇聯의 對韓 經濟接近은 궁극적으로는 日本의 資本誘致가 目的일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지가 報道.

● 北方政策研究資料 시리즈 ●

- I. 蘇聯의 改革·開放과 韓半島 (1988)
- II. 韓半島 平和와 統一環境研究 (1988)
- III. 고르바초프의 對外政策資料集 (1988)
- IV. 北方政策推進에 있어 提起되는 國際·國內法的 諸問題 (1988)
- * 北方 3角關係의 變化와 韓半島 (自體研究報告書 : 1989)
- V. 蘇聯의 對內外政策 主要 資料集 (1989)

北方政策研究資料 시리즈 Ⅴ (국통조 89-10-75)

蘇聯의 對韓國 接觸·交流의 現況과 展望

1989年 10月 日 印刷

1989年 10月 日 發行

發行處：國土統一院 調查研究室(第5研究官室)

☎ 720-2145

印刷所：서라벌印刷株式會社

〈非賣品〉

